

中原文化圈遺蹟精密調查報告書

原州市・原城郡

1985. 12

明石

檀國大學校 博物館

中原文化圈遺蹟精密調查報告書

原州市・原城郡

1985. 12

檀國大學校 博物館

1. 江原監營門樓 吳 宣化堂	1
2. 原州中央洞石佛坐像	5
3. 原州中央洞五層石塔	9
4. 原州一山洞石塔材	13
5. 傳天王寺址出土石塔材	17
6. 靈 泉 寺	21
7. 傳天王寺址菩薩立像	25
8. 原州鳳山洞幢竿支柱	29
9. 原州鳳山洞石佛坐像	33
10. 普 門 寺	37
11. 國 享 寺	41
12. 國享寺晉庵堂浮屠	45
13. 國享寺東岳祭壇址	49
14. 立石寺磨崖如來坐像	53
15. 富興寺址石塔材	57
16. 原成興陽里石塔材	61
17. 原城壽岩里瓦窯址	65
18. 原城壽岩里石塔材	67
19. 原城橋項里佛頭	71
20. 龜龍寺大雄殿	75
21. 龜龍寺普光樓	79

22. 龜龍寺尋劍堂 吳 說禪堂	83
23. 龜龍寺浮屠群	87
24. 興法寺眞空大師塔碑龜趺 吳 螭首	91
25. 興法寺址三層石塔	95
26. 甄 萱 城	99
27. 原城宮村里先史遺蹟	103
28. 興 原 倉 址	107
29.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	111
30. 居 頓 寺 址	115
31. 居頓寺址三層石塔	119
32.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	123
33. 原城法泉里古墳	127
34. 法泉寺址幢竿支柱	131
35. 法泉寺址石造物部材	135
36. 原城契丹族激退地	139
37. 原城貴來里三層石塔	143
38. 黃山寺三層石塔	147
39. 原城周浦里磨崖如來坐像	151
40. 黃山寺址	155
41. 鴿鷗山城	159
42. 下尾山城	163
43. 金頭山城	167
44. 原城龍岩里石塔	171

45. 上院寺大雄殿	175
46. 上院寺三層石塔 吳 光背	179
47. 原城黃屯里石塔	183
48. 原州一山洞石佛坐像	187
49. 江原監營青雲堂	191
50. 原城橋項里磨崖菩薩坐像	195
51. 鴿 鷗 寺	199
52. 原城龍谷里三層石塔	203
53. 原城龍谷里石佛坐像	207

江原監營門樓 및 宣化堂

1. 所 在 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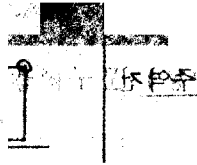
江原道 原州市 一山洞 54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역대 관찰사

5. 沿革 및 事蹟

兩 건물이 고려시대에 건립하였다고 하나 현재의 건물은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물이다. 門樓는 江原監營 당시의 출입정문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宣化堂은 조선시대에 강원도의 監營청사로 쓰였던 것이다.

6.25 동란때 크게 파손된 것을 보수하였는데 宣化堂은 군청에서 사용하여 창문을 내는등 개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본래의 모습으로 수리하여 지방유형문화재 제 3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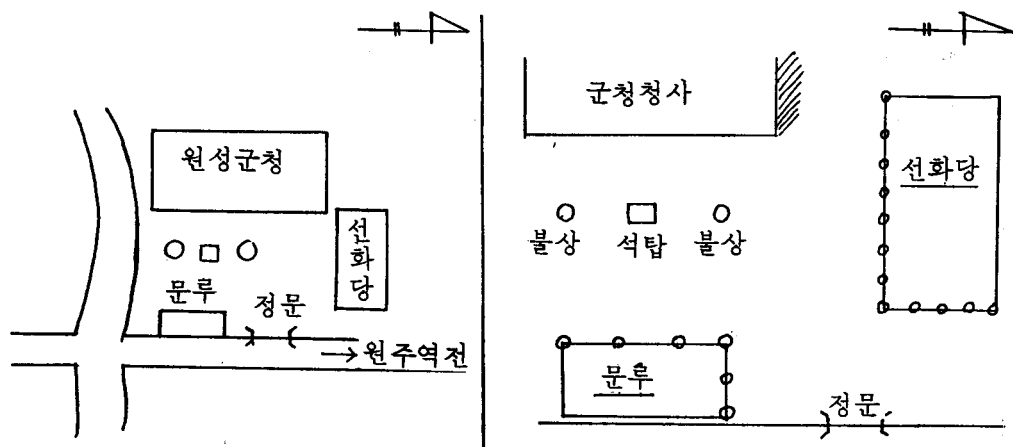
門樓는 누마루집으로 正面 3間(9.2 m), 측면 2間(5.1 m)의 규모인데 겹처마 八作지붕이다.

宣化堂은 正面 7間 측면 4間 규모의 거대한 八作 집으로 바닥은 마루를 깔아 놓았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門樓는 아래층의 중앙에 門을 달아 출입하도록 했고 동쪽편에 방을 마련해 놓았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兩 건물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특히 1974 년도에 번외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비도 새지 않고 宣化堂의 단청이 고와서 원주시의 명물로 주목되고 있다.

10. 參 考 文 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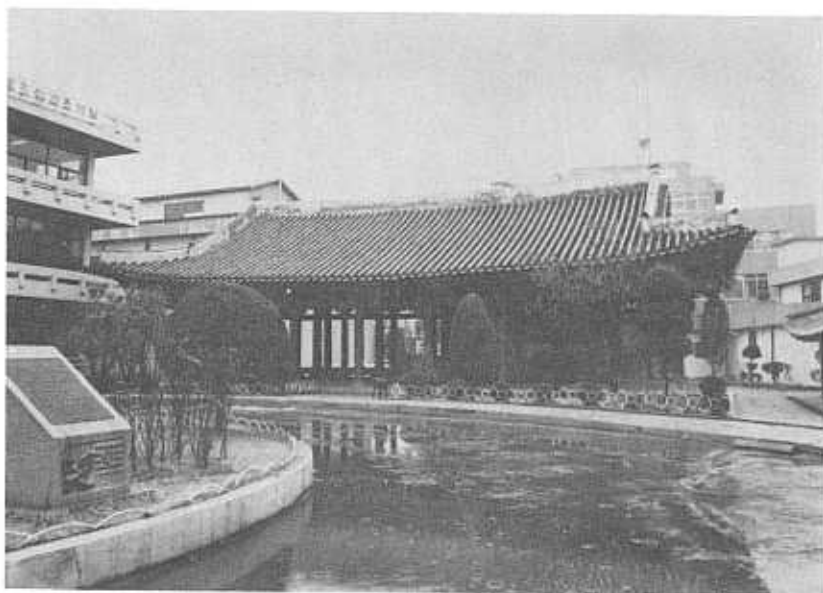
1-1. 강원감영누문 (정면)



1-2. 강원감영누문 (측면)



1-3. 강원감영 선화당 (측면)



1-4. 강원감영 선화당 (정면)

原州中央洞石佛坐像

1. 所在地

江原道 原州市 一山洞 54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현재 原城郡廳內 잔디밭에 안치하고 있는데, 본래는 中央洞(하동리)에 있던것을 일제침략기때 日人들이 南山 추월대로 옮겨 오래동안 동산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6.25 동란후 현재의 자리로 옮겼고(1962년 5월)이후 1971년 12월 16일에 지방유형문화재 제 4호로 지정 보존하게 되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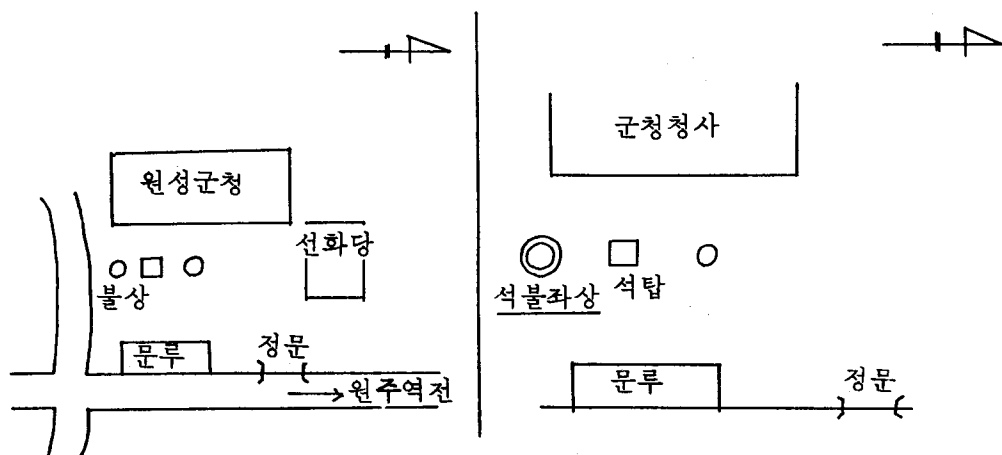
언제인지는 모르나 머리가 파손되었는데 이곳에 안치하면서 머리를 새로 만들어 놓았다.

광배는 없으나 높직한 좌대위에 좌상을 안치하였다. 상·중·하대로 이루어졌는데 8각의 하대측면석에는 각 면에 안상내의 사자 1좌씩이 배치되었고 큼직한 8판 복련의 연화대석이 놓여 있다. 8각의 중대석에도 안상이 있고 원형의 상대석은 이중의 양면석으로 이루어졌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좌상은 手印이 지권인이므로 비로자나불임을 알 수 있는데 좌대의 연판이나 좌상의 의문등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시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全高 2.2 m, 좌상높이 1.1 m)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머리를 새로 만들어 놓아 동체와 잘 어울리지 않으나 그래도 원형을 찾아본 뜻에서는 그런대로 주의를 끈다.

군청 경내에 안치하고 있으므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이 좌상에서 대좌가 완전하므로 고려초기 불상좌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2-1. 원주 중앙동 석불좌상 (정면)



2-2. 원주 중앙동 석불좌상 (좌대)



2-3. 원주 중앙동 석불좌상



2-4. 원주 중앙동 석불좌상 (좌대)

原州中央洞五層石塔

1. 所 在 地

江原道 原州市 一山洞 54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이 석탑은 현재 군청내의 잔디밭에 불상들과 함께 나란히 안치되어 있는데 본래는 中央洞(하동리) 절터에 있던것을 일제침략기때 南山으로 옮겨 놓았었다. 그러나 6.25 동란 이후(1962년 5월)에 현재의 자리로 옮겼으며 1971년 12월 16일 지방유형문화재 제 5호로 지정 보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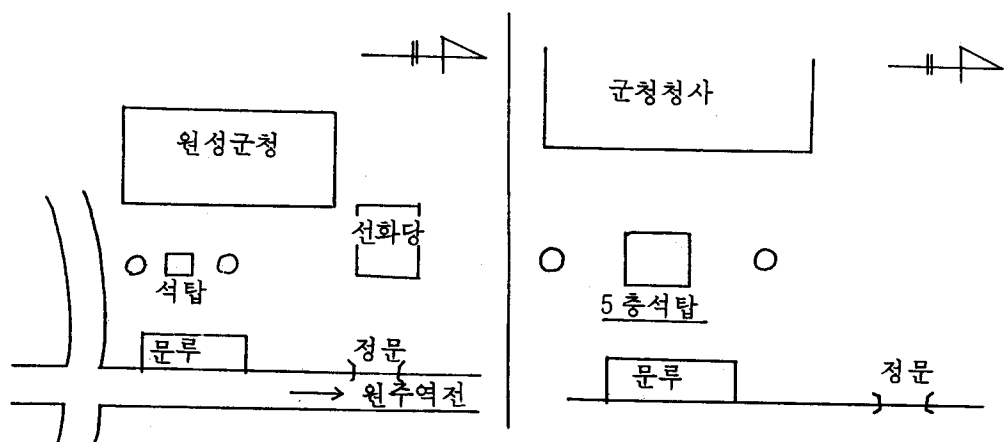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단층기단위에 5층의 탑신을 형성한 일반형 석탑이다. 현 전체의 높이 3.7 m의 中形 석탑인데 기단에는 양쪽우주와 면석의 1탱주가 모각되었다. 탑신은 身·蓋가 각 1석씩인데 각층 탑신에는 양우주가 모각되고 옥개석의 받침은 3단씩이다. 상륜부는 노반부터 없어진 것을 근년에 새로 만들어 올려 놓았다. 낙수면이 평박하여 전립연대는 고려시대 전반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단층기단이나 甲石上面의 탑신부 피임대와 각 모서리의 合角은 뚜렷하다. 그리고 각 옥개석 상면의 탑신피임도 1단씩이 정연하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기단갑석에 다소의 파손이 있어 부재를 새로 만들어 끼워 놓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고려시대 석탑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주목된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1981).



3-1. 원주 중앙동 5층석탑



3-2. 원주 중앙동 5층석탑 (측면)



3-3. 원주 중앙동 5층석탑 (탑신부)



3-4. 원주 중앙동 5층석탑 (하층부)

原州一山洞石塔材

1. 所在地

江原道 原州市 一山洞 54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현재 군청내의 靑雲堂 앞쪽 잔디밭에 많은 석조물 부재를 옮겨 놓았는데 이들은 이곳에 옮기기 전에 감리교회 앞마당에 보존되어 있던 유물이라고 한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이들 석조물은 석탑과 석불의 각 부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석탑은 기단갑석(한변의 길이 1.2 m) 탑신석(한변의 길이 52 cm, 높이 53 cm) 옥개석(한변의 길이 92 cm) 등의 부재이며 석불은 좌상(높이 107 cm)과 원형연화대석(직경 91 cm) 등인데 본래 어느 절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석탑이나 석불에서 풍기는 조성양식을 보면 모두 고려시대 전반기의 조성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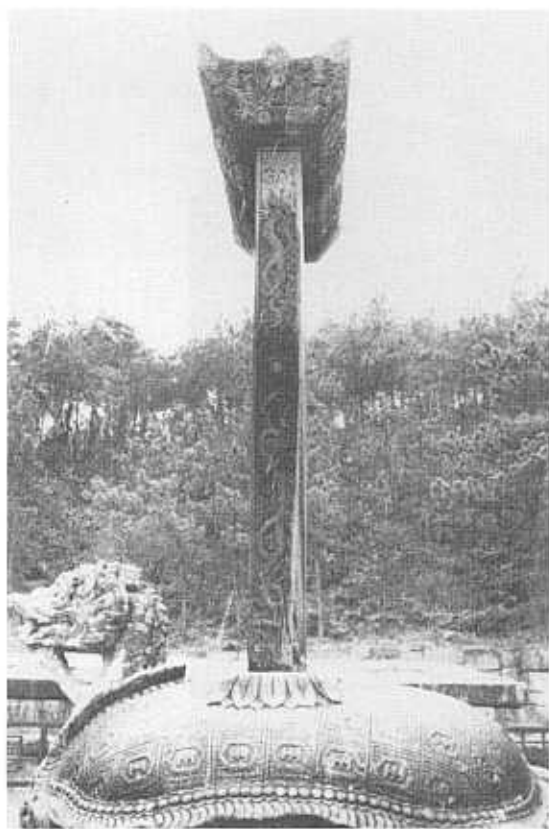


32-1.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32-2.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뒷면)

32-3.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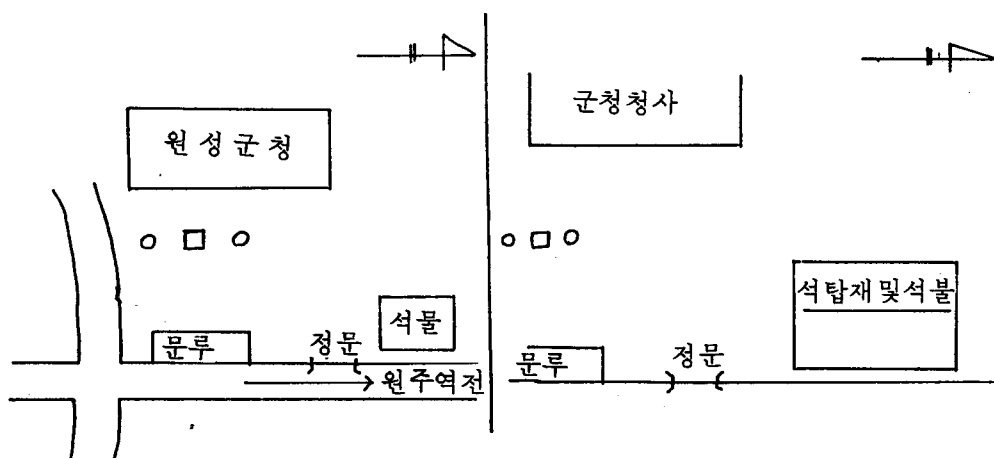


32-4.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귀부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탑신석은 양우주가 정연하고 사방에는 四天王像이 두드러지게 양각되어 주목된다. 이 밖에 기단면석에도 조각이 있으며 方形의 연화대석 1석이 있는것도 불상대좌의 부재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이 부재들을 잘 진열하여 철책을 돌려 놓았으므로 보존이 양호하다. 연판이나 四天王像 조각등은 고려전반기의 조각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10. 參考文獻

없 음



4-1. 원주 일산동 석탑재



4-2. 원주 일산동 석탑재



4-3. 원주 일산동 석탑재



4-4. 원주 일산동 석탑재

傳天王寺址出土石塔材

1. 所在地

江原道 原州市 鶴城1洞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市內 鳳山洞에 있는 天王寺址에서 出土되었다고 전하나 出土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현재 제1군 사령부의 사찰법당인 法雄寺의 앞마당에 보존되어 있으나 天王寺址에 있던것을 1971년에 法雄寺를 창건하고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현재 남아 있는 석탑의 부재는 탑신석 1석과 옥개석 2석 뿐인데 큼직한 자연석을 지대삼아 그 위에 올려 놓았다.

탑신석은(한변의 길이 57 cm, 높이 57 cm) 양 우주가 정연하고 사면에는 1구씩의 四方佛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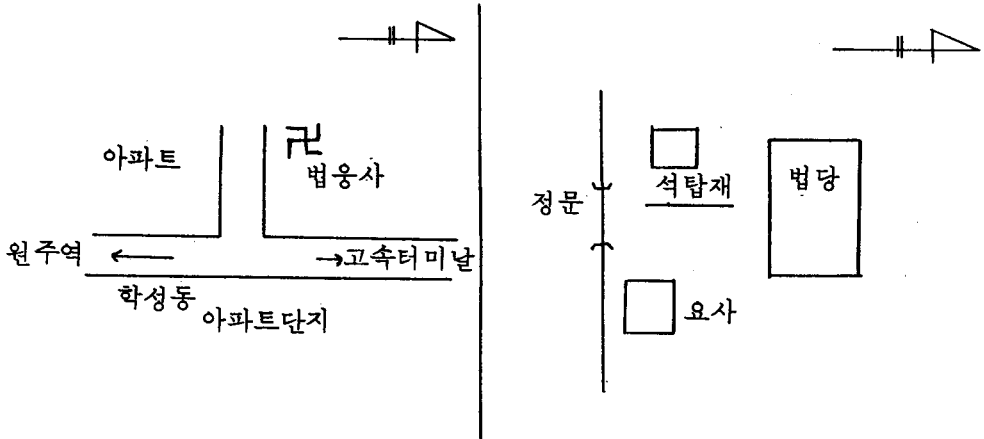
옥개석은(한변의 길이 85 cm, 다른 옥개석의 한변의 길이 65 cm) 하면에 받침이 4단씩이고 상면에도 탑신과임이 각출되어 있다.

四方佛이나 옥개받침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시대 전반으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탑신석의 四方佛은 현재 조각이 회미하나 머리위의 큼직한 肉髮과 相好의 각부, 결가부좌한 형태등은 뚜렷하게 윤곽이 남아 있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법웅사내에 있으므로 보호가 잘 되고 있는데 비록 완형이 아니고 부재에 불과하나 원주지구의 불교유적을 연구하는 데에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10. 參考文獻

없 음



5-1. 전 천왕사지출토 석탑재



5-2. 전 천왕사지출토 석탑재



5-3 전 천왕사지출토 석탑재



5-4. 전 천왕사지출토 석탑재

靈 泉 寺

1. 所 在 地

江原道 原州市 台庄1洞 122-1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창건은 고대라고 전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麗末의 高僧인 普濟尊者

5. 沿革 및 事蹟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려중엽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현재 그 당시의 조성으로 추정되는 유적, 유물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대웅전과 산신각 요사채등의 건물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1968년경에 새로 세운 것이다. 한편 이곳에서 1915년 「令博寺址 普濟尊者舍利塔(보물 제358호)」 2기를 서울로 옮겨 현재 경복궁내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원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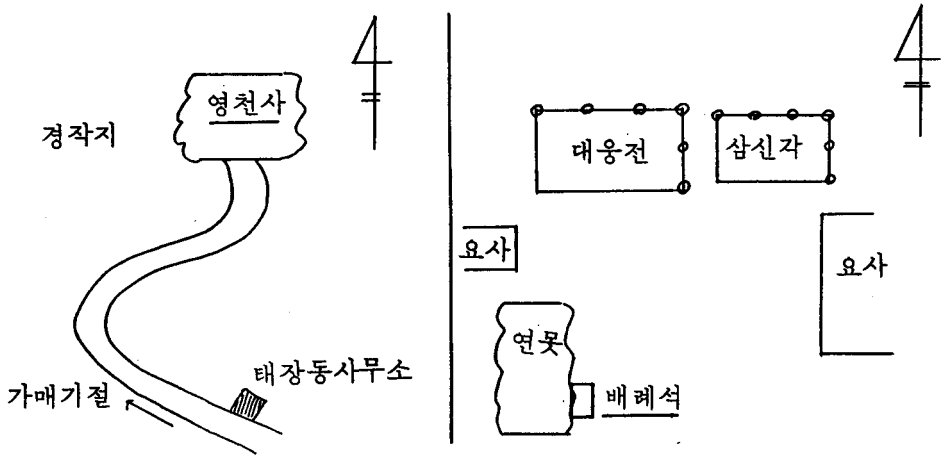
대웅전은 正面 3間, 측면 2間の 八作집이며 산신각은 正面 3間, 측면 2間の 맞배집이다. 이곳에서 주목되는 것은 장방형으로 이루어진 큼직한 연못과 그 뚝에 놓여있는 장방형의 拜禮石인데 이들은 고려시대 초창시의 유적 유물로 추측된다.

배례석은 123cm × 60cm의 규모로 전후면에는 4區의 眼象이 있고, 양측에는 2區씩의 眼象이 있으며 상면에는 연화문의 흔적이 뚜렷하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배례석의 용도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혹시 서울로 옮겨진 사리탑에 관계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연못도 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오래된 蓮池로 생각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비구니 스님들이 잘 유지하고 있어 법당 및 부속 건물들도 깨끗한데 다만 장방형 배례석의 보존이 어렵다.
즉 이 사찰에서는 이 배례석이 가장 오래된 석조물이기 때문이다.

10. 參考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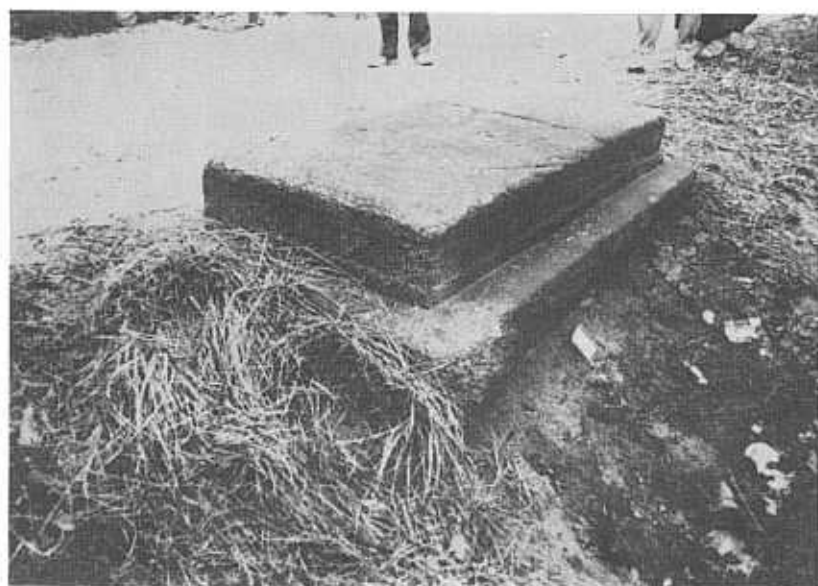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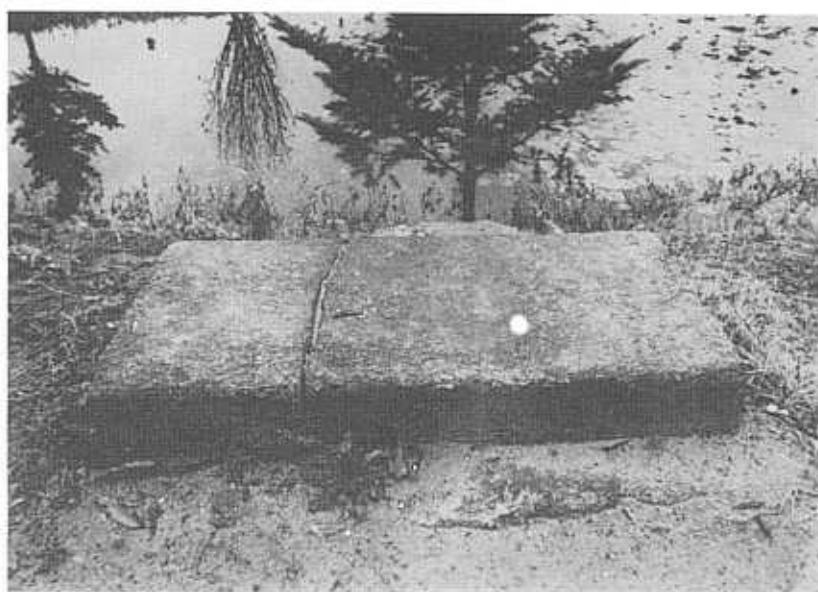
6-1. 영천사 (중심부)



6-2. 영천사 연못



6-3. 영천사 배례석



6-4-영천사 배례석 (상면)

傳天王寺址菩薩立像

1. 所在地

江原道 原州市 鳳山 1 洞 山 5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바로 윗쪽의 天王寺址에서 出土되었다고 전하나 出土 여·부는 알 수 없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현 관리자인 황은기씨가 12년전에 현재의 자리에 옮겨 세웠다고 하는데 바로 윗쪽이 옛 天王寺터로 이 보살입상은 바로 이 절터에서 출토된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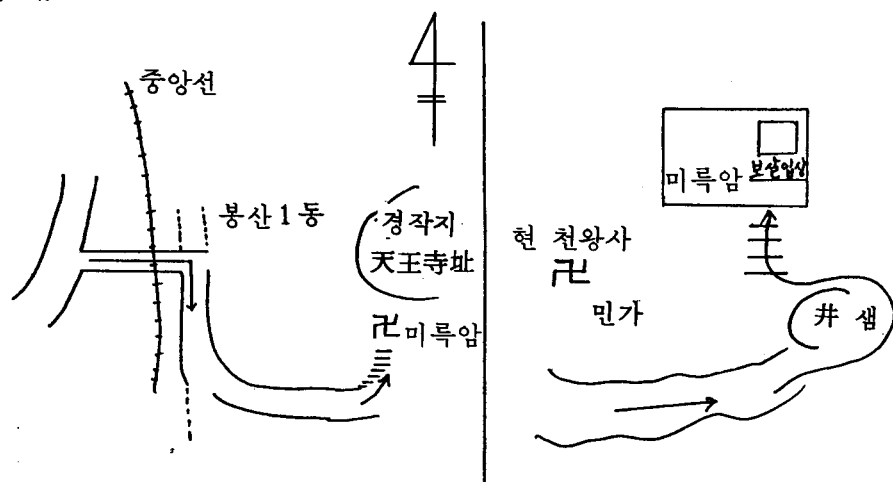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화강암 1석으로 조성한 보살상인데 목이 절단된 것을 보수해 놓았다. 머리위에는 높직한 보관을 썼고 원만한 相好의 각 부는 정제되었다. 三道가 있어 자비스러우면서도 근엄한 인상이다. 天衣는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으며 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에 들었고 왼손은 앞으로 취하고 있다. 全高 1.95 m의 中形石像인데 각부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 초반으로 생각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寶冠이 익선관 형태이어서 주목되며 天衣가 양쪽 무릎에서 각기 圓弧形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直立이면서도 뒤로 약간 제쳐진 胴體가 주목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이곳에는 작은 법당 하나를 짓고 암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보살입상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고려시대의 불상조각 연구에 좋은 자료라 하겠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7-1. 전 천왕사지 보살입상



7-2. 전 천왕사지 보살입상



7-3. 전 천왕사지 보살입상



7-4. 전 천왕사지 보살입상

原州鳳山洞幢竿支柱

1. 所在地

江原洞 原州市 鳳山 2洞 1155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옛부터 사형터로 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無知한 사람들의 말이었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본래의 위치가 현재의 자리인데 이곳에는 신라시대 말기에 「天王寺」가 있었다고 한다.

6.25 동란때 한쪽 支柱가 절단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하여 1976년 6월 15일에 지방유형문화재 제 49호로 지정 보존하고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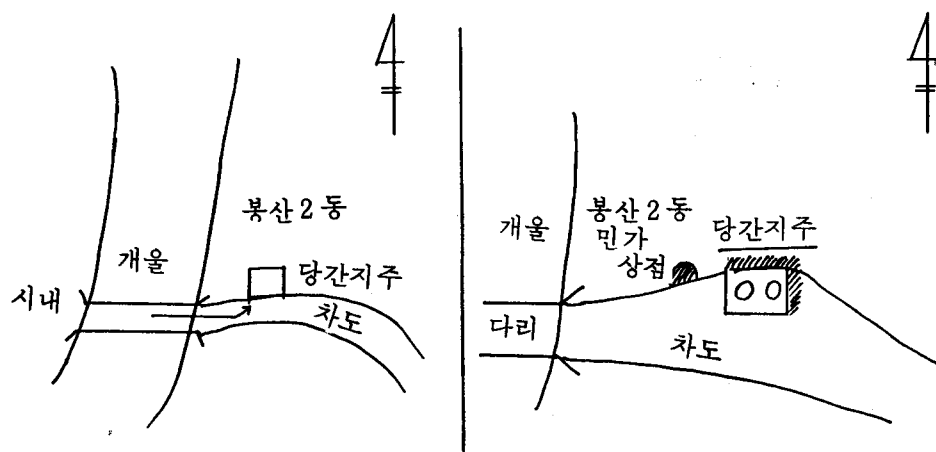
신라시대 이래의 일반형 당간지주인데 양지주의 상단부 내면에 長形孔이 있어 주목된다. 全高 3.8 m의 中形인데 밑에 큼직한 간대가 있어 주목된다.

간대는 자연석의 중앙에 원좌를 마련하고 그 중심에 원공을 파 놓은 것이다. 간대나 지주의 형식과 조성수법으로 보아 연대는 고려 초반으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간대에서 1단의 圓形괴임과 또 하나의 넓직한 괴임이 있고 또 하나의 두드러진 원형괴임이 刻出되어 있어 정연한 간대임에 주목된다.

8. 略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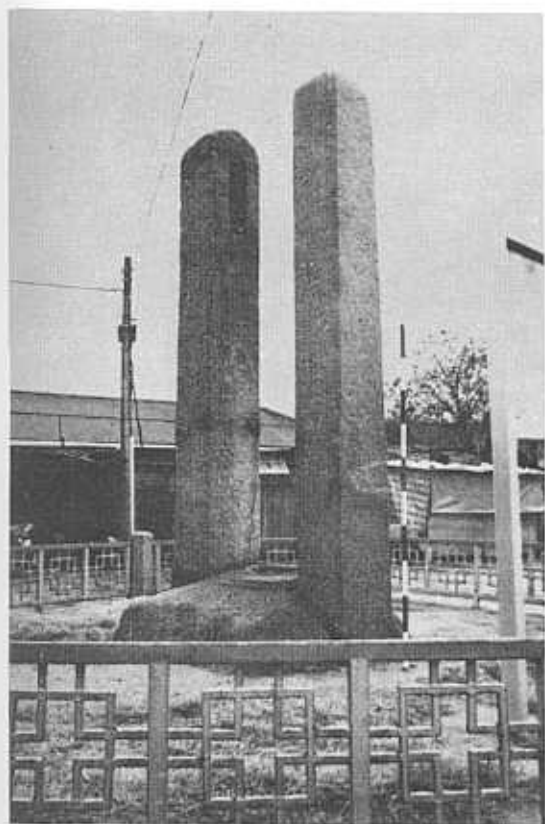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위치가 현재는 도로변이 되어 있으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어서 보존은 양호하다.

고려초기의 당간지주 및 석조건조물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8-1. 원주 봉산동 당간지주



8-2. 원주 봉산동 당간지주



8-3. 원주 봉산동 당간지주



8-4. 원주 봉산동 당간지주 간대부분

原州鳳山洞石佛坐像

1. 所在地

江原道 原州市 鳳山 2 洞 46-6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땅속에서 出土된 미륵불로 옛부터 영험이 많다고 전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현재가 원위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어서 노파 홍동윤 보살이 일찍부터 공양하고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광배와 좌대를 구비한 석불좌상으로 좌대 밑부분이 묻혀있어 중대 이상부터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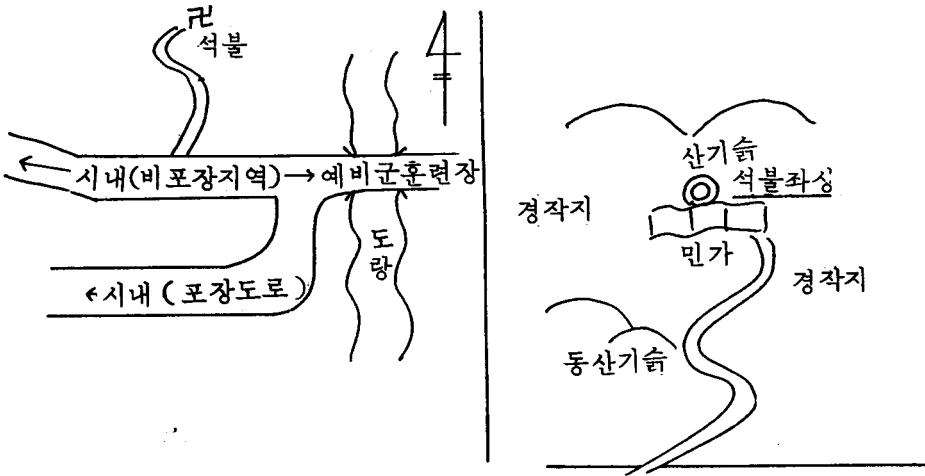
중대석은 8角으로 각 면에 좌상들이 1구씩 조각되고 원형의 상대석에는 二重의 양연이 둘러져 있다.

광배는 舟形擘身光으로 두광은 원형으로 표시하고 주연에는 화염문이 조각되었다. 좌상은 머리가 많이 파손되고 동체는 완전하다. 광배 높이 1.75 m, 좌상 높이 1.05 m의 中形인데 각부의 조각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 초반으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광배가 완형이어서 주목되며 좌대의 상대석 양편이 도식적이어서 주의를 끈다. 석불의 범의가 유려하나 부분적으로 섬약해진 것은 시대적 특징이 아닌가 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보존은 양호한 편이나 묻혀있는 중대석 하부와 하대석 부분까지를 발굴 수습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하였으면 좋을것 같다. 대좌와 석불 자체로 보아 지방문화재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10. 參考文獻

없 음



9-1. 원주 봉산동 석불좌상



9-2. 원주 봉산동 석불좌상



9-3. 원주 봉산동 석불좌상



9-4. 원주 봉산동 석불좌상

普 門 寺

1. 所 在 地

江原道 原州市 杏邱洞 山 5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보문사는 치악산 중턱에 있는 절인데 현재 대웅전과 요사채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10 년전에 새로이 건축한 것이라 한다. 이곳에서 주목되는 것은 靑石塔으로 이 석탑이 고려시대 것이므로 普門寺의 옛 사적을 짐작하게 한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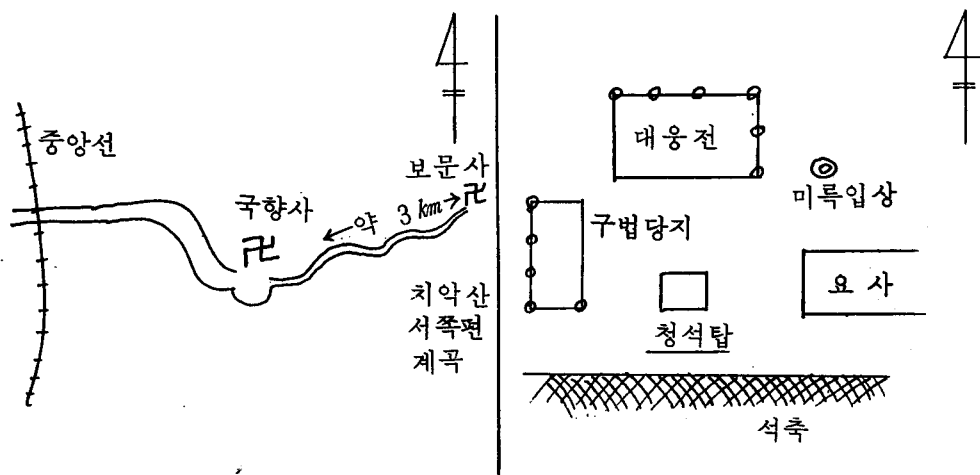
靑石塔은 現高 1.04 m의 小形인데 2 층의 기단위에 5 층의 탑신을 형성한 것이다.

2 층의 기단갑석에 해당되는 상면에는 연화문이 둘러지고 그 위에는 각기 1 석씩으로 조성한 탑신과 옥개석을 차례로 올려 놓았다. 靑石塔의 유행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였는데 이 석탑도 고려시대 전반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우선 청석탑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며 기단갑석의 연화문이 주의를 끌곤다. 우리나라 청석탑 분포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경내에 건립되어 있으므로 보존이 양호한데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했으면 좋겠다.

靑石塔이란 특수성과 또한 보존이 좋은 점 등으로 보아 지방문화재 지정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考古美術」 126. “俗離山과 稚岳山の 靑石塔二例”, (張忠植)



10-3. 보문사 청석탑



10-4. 보문사 청석탑

國 享 寺

1. 所 在 地

江原道 原州市 杏邱洞 98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신라 敬順王때 無着大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현재 법당으로 觀音殿이 있고 승방과 요사채들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해방후에 새로 건축하고 또는 6.25동란이 후에 건립한 것이다.

신라시대 창건이라고 하나 당시의 유적 유물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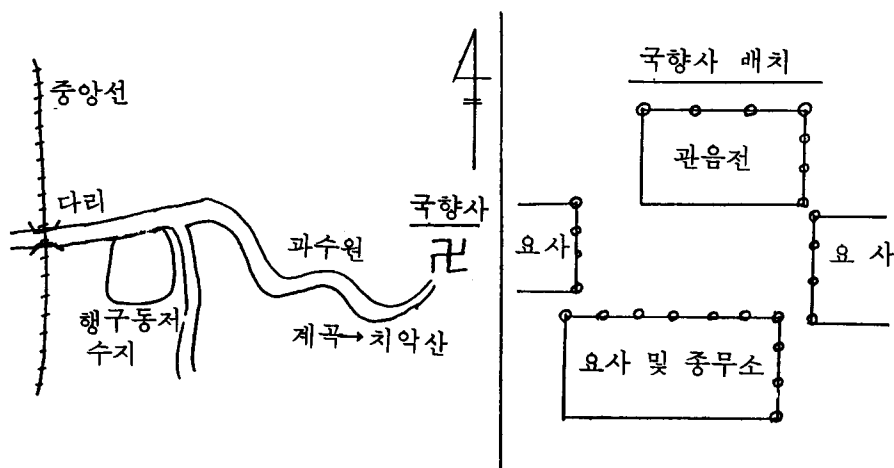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관음전은 正面 3間, 측면 3間の 八作집이며 승방은 正面 6間, 측면 3間の 八作집이고 이 밖에 요사들도 모두 八作집들이다. 다만 小形의 맞배집이 있으나 승려들의 기거처는 아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조선 초기 定宗의 公主와 얽힌 중창전설이 있으나 이 당시의 유적 유물도 남아 있지 않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시내에서 가깝고 신도들이 많음으로 사찰유지에는 지장없이 각 건물도 보존이 양호하다.

초창당시의 사찰터가 짐작은 되나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는한 확실한 지점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11-1. 국향사



11-2. 국향사 대웅전



11-3. 국향사 요사



11-4. 국향사 요사

國 享 寺 晉 庵 堂 浮 屠

1. 所 在 地

江原道 原州市 杏邱洞 98

2. 關係 資 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 事件 및 人物

晉庵堂大師의 墓塔임.

5. 沿革 및 事蹟

國享寺의 동쪽 산기슭에 건립되어 있는데 石鐘型浮屠로 현재의 위치가 원위치이다. 현존 國享寺 석조물로는 가장 오래인 유물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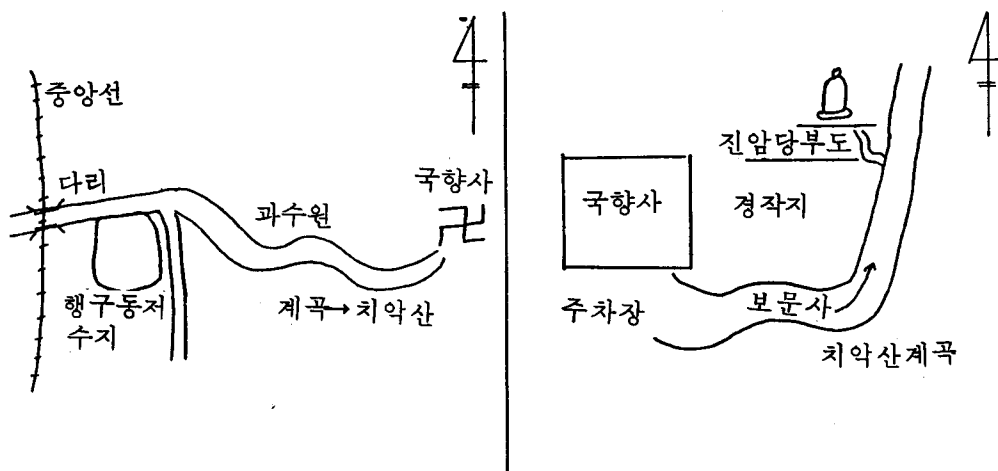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全高 1.74 m의 中形浮屠인데 탑신표면에 「晉庵堂 大禪師 靈珠塔」 「崇禎三年己○四月」의 銘文이 있어 주인공과 건립연대를 알 수 있는데 건조연대는 조선 제 16 대 仁祖 7 年(1629)이다. 圓形台石 위에 탑신을 안치하였는데 대석과 탑신, 寶珠形의 相輪에 이르기까지 앙련과 복련, 고사리문 등을 가득히 조각해 놓았다. 바로 옆에는 또 하나의 浮屠가 있었으나 현재는 직경 62 cm의 대석만이 남아 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부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화문인데 대석 측면에는 상·하에 연꽃이 있고 탑신부, 노반부에도 상·하에 양·복련이 가득히 조각되어 있는 점이다. 조선시대 후기의 부도로는 화려한 편이라 하겠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원형이 잘 남아있고 보존도 양호하며 묘탑의 주인공과 그 건립연대도 뚜렷하므로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양식이나 조각수법등으로 보아 지정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12-1. 국향사 진암당부도



12-2. 국향사 진암당부도

12-3. 국향사 진암당부도



12-4. 국향사 진암당부도 대석부분

國 享 寺 東 岳 祭 壇 址

1. 所 在 地

江原道 原州市 杏邱洞 98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州市 편

3. 傳 說

조선초 定宗때 公主의 身病을 完治한 곳이 바로 이곳 東岳祭壇으로 당시 百日기도를 드려 東岳山神靈의 가호에 의한 것이라 전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조선 定宗의 公主

5. 沿革 및 事蹟

현재의 건물은 근년에 신축한 것이나 본래는 조선초기 定宗때 제단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현재도 이곳에서 春秋로 護國大祭를 올리고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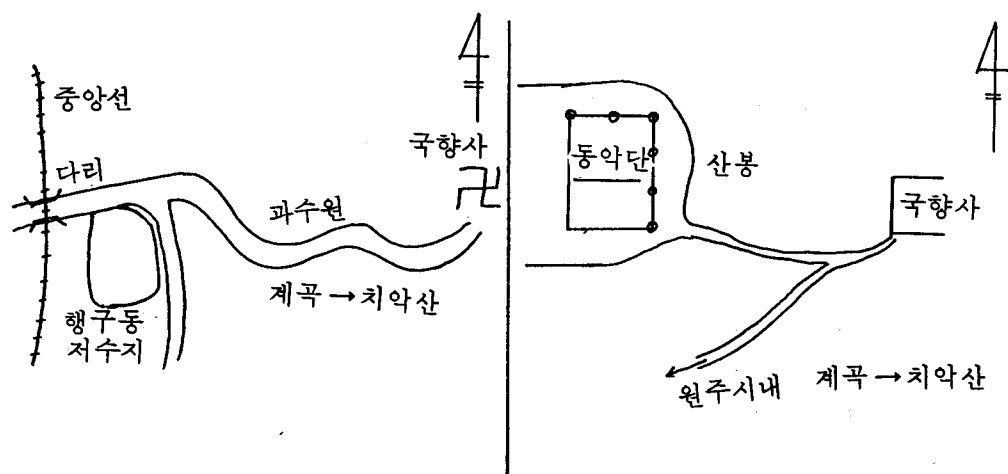
土壇만이 남아 있던 곳에 건물을 지어 「東岳壇」을 설치하였는데 正面 3間, 측면 2間 규모의 맞배집이다.

좌·우에 防風板이 있고 새로 지은 집이어서 단정하다. 주변은 돌담으로 에워싸 神壇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國享寺 뒷산의 산봉이 끝나는 곳에 위치하여 원주시내가 한눈에 바라 보이며 치악산이 동쪽에 보이는 眺望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가까운 곳에 國享寺가 있고 또 시에서도 이곳을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존이 양호하다. 祭典의 儀式과 山岳信仰, 토속신앙등 여러 가지 민속학적인 입장에서 주목할만한 유적이라 하겠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13-1. 국향사 동악제단



13-2. 국향사 동악제단



13-3. 국향사 동악제단



13-4. 국향사 동악제단 뜰

立石寺磨崖如來坐像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所草面 興陽里 184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立石寺의 立石台에서 산허리를 따라 약 30 m되는 암벽에 양각한 如來坐像이다.

立石寺에서는 가장 오래된 石造物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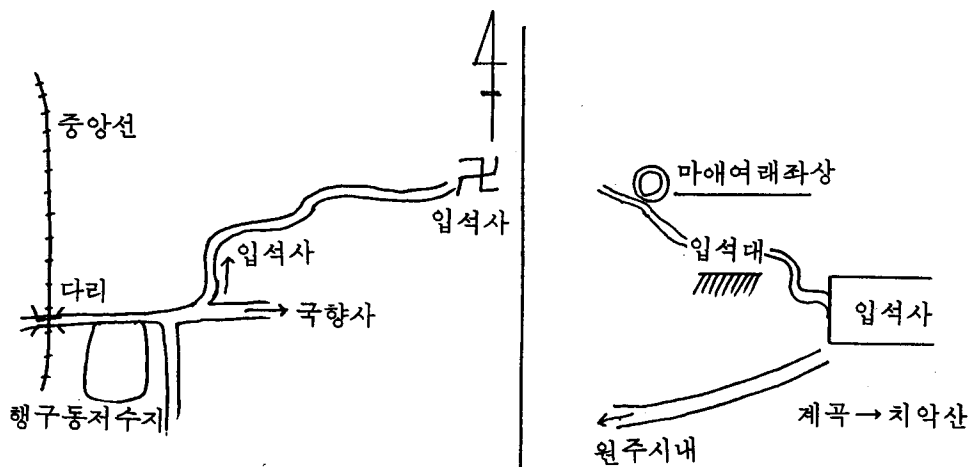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全高 1.18 m의 마애불로 연화좌와 광배를 구비하고 있다. 연화좌는 單葉의 仰蓮이고 광배는 頭身光으로 구분되어 있다. 法衣는 通肩이며 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에 들고 왼손은 앞으로 뻗고 있다. 3.1 m 높이의 암벽에 금이 가고 불상 자체에도 마손이 심하여 각부의 조각을 자세히 살필 수 없음은 유감이다. 그러나 각부의 양식이나 조각수법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 초반으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앙련좌를 구비하고 원형의 두광까지 갖추고 있음이 주목된다. 주변 암벽에는 아무런 시설물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마멸이 심한데 앞으로의 보존을 위하여 雨露를 피할 수 있는 架構를 설치하였으면 좋겠다.

연대도 고려초반으로 올라감으로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14-1. 입석사 마애여래좌상



14-2. 입석사 마애여래좌상



14-3. 입석사 마애여래좌상



14-4. 입석사 마애여래좌상

富興寺址石塔材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所草面 興陽里 165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원봉희씨 집 일대가 옛절터로 추측되는 바 원씨집 문밖 앞마당에 석탑재가 남아 있다. 원씨의 말에 의하면 현재의 자리가 원위치라 하며 주변 밭을 경작할 때면 많은 石材가 출토되며 기와편들도 무수히 수습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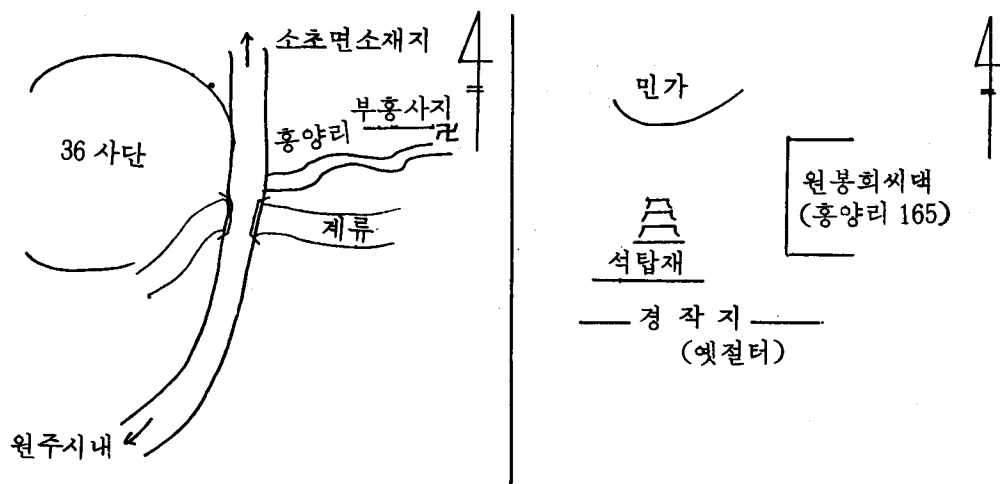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현재 남아있는 부재는 하층기단과 상층기단 면석 일부, 옥개석 2 석과 탑신석 1 석 뿐이다. 기단부재에서 주목되는 것은 八部神衆像이 조각되어 있는 점이다. 즉 각면에 양우주와 1 탕주가 있어 1 면에 2 軀씩의 神像을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탑신에는 양우주가 있고 옥개석받침은 4 단이다. 기단갑석 상면은 合角線이 뚜렷하다. 이 석탑은 神像의 조각과 탑신부의 짜임으로 보아 고려 초반의 건립으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탑신석의 높이가 17 cm인 점으로 보아 상층부의 탑신으로 추측된다. 특히 상층기단면석에 神像이 원형두광을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비록 완전한 석탑이 아니고 몇 개의 부재에 불과하나 기단부의 조각이 주목되는 탑으로서 原城地區 불교유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주변 경작지에서 많은 기와편과 석재가 출토된다는 증언이 있으므로 이곳 일대를 발굴 조사하여 사찰의 규모와 성격을 밝혔으면 좋겠다.

현재 노출되어 있는 각 부재는 원씨가 잘 보관하고 있으므로 보존은 양호하다.

10. 參考文獻

없 음



15-1. 부흥사지 석탑재



15-2. 부흥사지 석탑재



15-3. 부흥사지 석탑재



15-4. 부흥사지 석탑재

原 城 興 陽 里 石 塔 材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所草面 興陽里 184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立石寺의 立石台에 위치한 石塔을 말함.

5. 沿革 및 事蹟

立石寺의 立石台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탑의 부재들을 모아 현재 立石台의 큼직한 암반위에 세워 놓았다. 현재의 각 부재로 보아서 는 화강암 부재와 粘板岩 부재가 있으므로 2基의 석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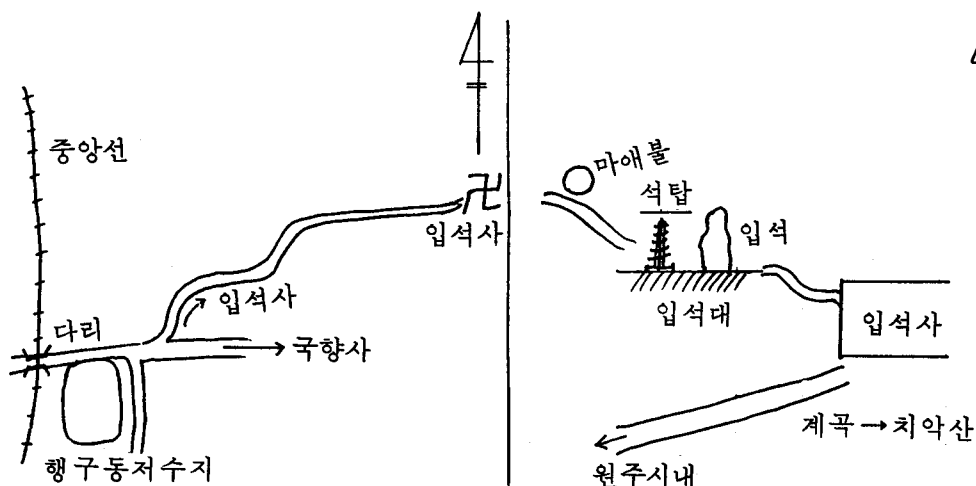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現 全高 2.2 m이나 원형이 아니다. 현재의 구성으로 보면 화강암 기단위에 2枚의 板石을 끼워놓고 그 위에 화강암으로 조성한 연화대석 2枚와 탑신석 2石을 놓았는데 여기에 蓮瓣은 단엽이며 탑신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었다. 이 위에는 3枚의 靑石部材가 있는데 1枚는 연화문이 돌려지고 2枚는 옥개받침까지 刻出된 옥개석이다. 비록 혼용된 석탑이라도 각 부재의 조성연대는 고려시대 전반기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이 탑에서 주목되는 것은 3枚의 靑石塔部材인데 고려시대에 이르러 유행을 보게된 청석탑의 一例를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주의를 끈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寺刹측에서 이 石塔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철망을 쳐 놓아서 보존은 양호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가 원형이 아니고 건립순서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해체하여 각기 2基의 석탑을 정확한 순서로 복원하였으면 좋겠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16-1. 원성 홍양리 석탑재 (입석사탑)



16-2. 원성 홍양리 석탑재 (입석사탑)



16-3. 원성 홍양리 석탑재 (입석사탑)



16-4. 원성 홍양리 석탑재 (입석사탑)

原 城 壽 岩 里 瓦 窯 址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所草面 壽岩里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이 유적지는 현재 육군 제 36 사단 본부가 주둔하고 있으므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와가마가 발견되었을 당시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상은씨(所草面 壽岩 1里 14-7, 51才)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부대정지 작업중 발견된 기와가마터로 기와가 무수히 발견되었다고 한다. 부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철거되어 현재의 주소로 이사하게 되었다는데 이 기와가마 옆에는 1基의 民墓가 있다고 한다.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李相殷씨 談話 參照.

6. 遺蹟現況 및 特徵

李相殷씨 증언 참조

7. 遺物現況 및 特徵

李相殷씨 증언 참조

8. 略 圖

李相殷씨 증언 참조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軍 當국에 의뢰하여 이 기와가마를 세밀히 조사해야 될 것으로
안다. 그것은 이곳 일대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기와가마이기 때문
이다.

10. 參考文獻

없 음

原城壽岩里石塔材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所草面 寺岩里 신양동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이갑수씨(長陽里, 3里 거주) 과수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제침략기에는 5층탑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절터 중앙부에 民墓가 생기고 석탑의 탑신부는 없어졌으며 기단석 2石이 남아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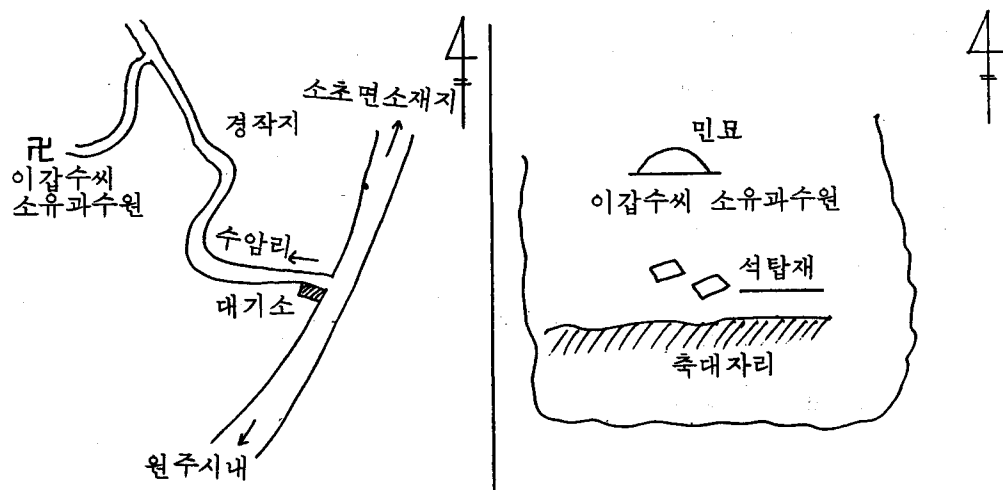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기단석은 형태로 보아 하층기단으로 추측된다. 全高 30 cm, 한변의 길이 127 cm의 규모로 보아 하층기단석이 분명한데 하단에는 굽형이 돌려지고 상단에는 갑석형이 모각되었다. 그리고 양 우주(폭 15 cm)가 있고 1 탱주(폭 17 cm)가 모각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 전반기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하층기단의 규모로 보아 그리 큰 석탑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하층기단 면석에 탕주가 모각된 것은 시대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주목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이곳 일대를 발굴조사하여 사찰의 규모와 성격을 밝혔으면 좋겠다. 현재는 기단부재만이 남아 있으나 이곳 지역의 불교유적 연구에는 좋은 자료라 할 것이다.

10. 參 考 文 獻

없 음



18-1. 원성 수암리 석탑재



18-2. 원성 수암리 석탑재



18-3. 원성 수암리 석탑재



18-4. 원성 수암리 석탑재

原 城 橋 項 里 佛 頭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所草面 橋項里 절골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임진왜란때 왜병을 격퇴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전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금직한 화강암 바위위에 佛頭 하나만이 北向하여 놓여 있는데 머리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보아 목이 절단되어 떨어진 것을 현위치에 올려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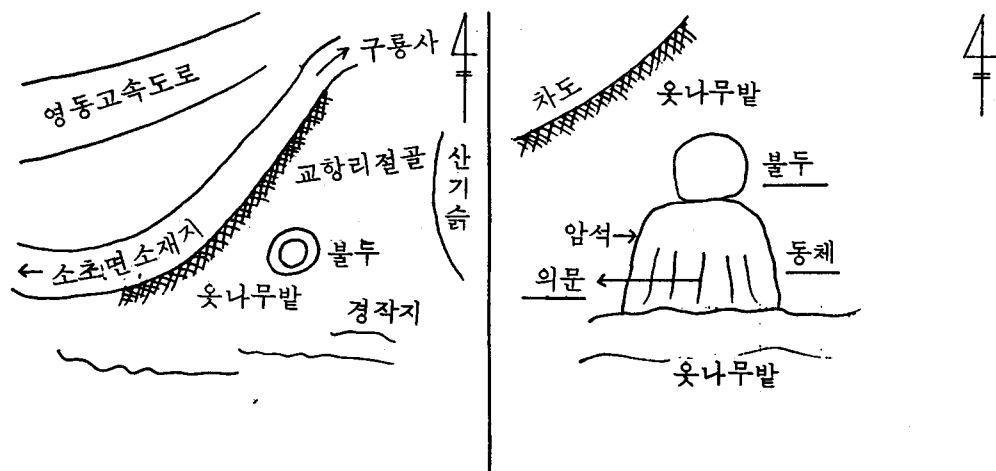
現 全高 1 m, 폭 1.05 m, 두께 50 cm 규모의 佛頭로 이마에는 白毫가 있고 양 미·안과 콧날이 정제되었으며 입은 굳게 다물고 있다. 양쪽 귀는 목에 까지 길게 드리워 졌으며 목에는 三道의 흔적이 있다.

이 佛頭는 圓刻像의 頭部가 아니고 암벽에 胴體를 조각하고 그 위에 머리부분만을 圓刻하여 올려 놓았던 것이었으니 큰 암벽에 胴體衣文이 지금도 보이고 있다. 相好 각부의 조각양식 수법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 전반으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러한 유형의 佛像은 坡州 龍尾里 石佛立像(보물 제 93 호)과 安東 泥川洞 石佛像(보물 제 115 호) 등의 형태에서 同一함을 볼 수 있는데 이곳 교항리 불두도 그 암벽이 $4m \times 5m$ 규모인 점으로 보아 초기에는 장대하였으리라 짐작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北向한 佛頭를 南向하게 하면 바로 밑부분이 胴體의 衣文과 연결되므로 원형을 찾아 복원해 놓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곳 일대도 발굴조사하여 사찰의 규모와 성격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사료된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1981)



19-1. 원성 교항리 불두



19-2. 원성 교항리 불두



19-3. 원성 교항리 불두



19-4. 원성 교항리 불두

龜 龍 寺 大 雄 殿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所草面 鶴谷 2 里 1029

2. 關 係 資 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龜龍寺事蹟記」 龜龍寺

3. 傳 說

義湘大師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4. 關 係 事 件 및 人 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龜龍寺事蹟에 의하면 신라 文武王 8년(668) 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대웅전 자리에 龍 9마리가 서식하였다 하여 처음에는 九龍寺라 했던것을 조선시대에 이르러 龜龍寺로 改稱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대웅전은 조선후기에 건립한 것으로 1971년 12월 16일 지방 유형문화재 제 24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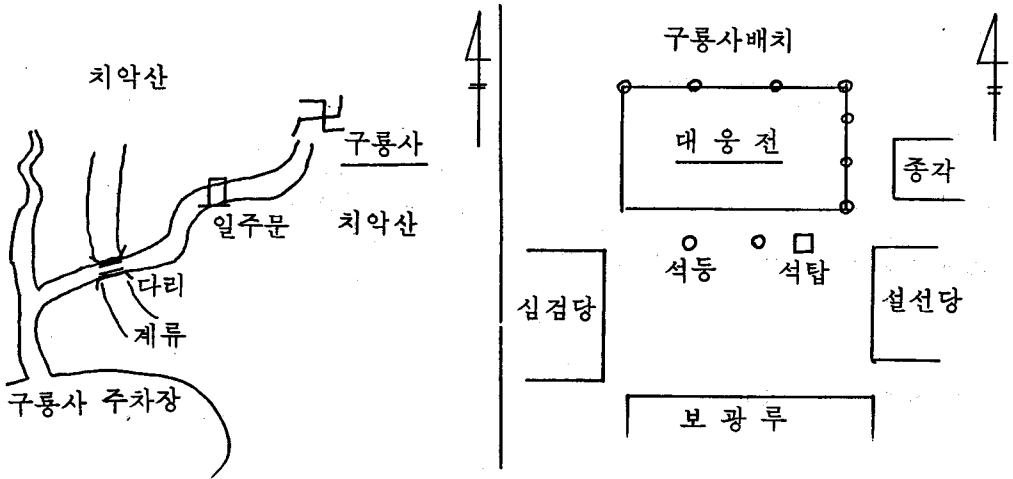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正面 3間, 측면 3間, 겹처마 八作지붕의 多包집인데 법당내에는 화려한 닻집이 있어 주목된다. 지붕은 한식 골기와이며 용마루에 치미가 붙어 있고 네귀통이에는 풍경이 달려 있다. 주초석은 자연석을 이용하였으며 기둥은 큼직하여 고식을 보이고 있다. 조선후기의 건물이나 장중한 형태임에 주의를 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대웅전내의 닛집은 이곳 주변에서 보기도문 화려하고도 장중한 것이다. 대웅전 건물자체도 이 일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조선후기전물이라 하겠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방문객이 많으나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사찰측에서도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어서 보존이 양호하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20-1. 구룡사 대웅전 (정면)



20-2. 구룡사 대웅전



20-3. 구룡사 대웅전



20-4. 구룡사 대웅전

龜 龍 寺 普 光 樓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所草面 鶴谷 2 里 1029

2. 關 係 資 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龜龍寺事蹟記」 龜龍寺

3. 傳 說

義湘大師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4. 關 係 事 件 및 人 物

없 음

5. 沿 革 및 事 蹟

龜龍寺 중심 경내로 들어가는 正門으로서 6.25 동란때에도 소실되지 않고 잘 남아 있는 조선후기의 건물이다.

입구에는 추녀 밑에 「雉岳山 龜龍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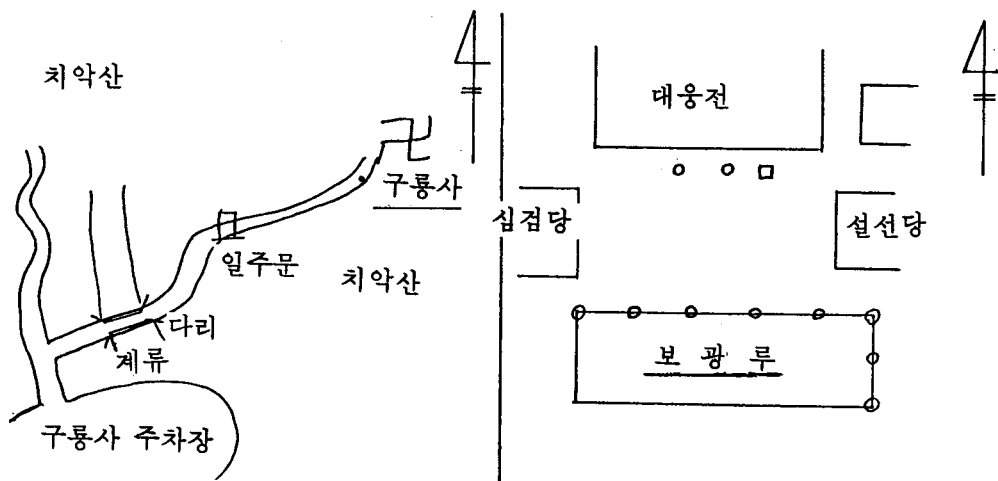
6. 遺 蹟 現 況 및 特 徵

「普光樓」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마루 집의 형태인데 正面 5間, 측면 2間の 규모이다. 윗층은 마루가 깔려 있고 밑은 통로가 개설되었는데 5間 중앙에 출입문이 시설되었다. 지붕은 맞배형으로 골기와가 얹혀 있으며 좌·우에는 방풍판이 달려 있다. 비록 조선후기의 건물이나 이곳 일대에서는 가장 장대한 건물로 평가되고 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5間을 이루고 있는 기둥이 큼직하고 누마루가 장중하여 古式을 엿볼수 있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寺刹에서 잘 보존하고 있으므로 상태가 양호한데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면 좋겠다. 그것은 건축이 장중하고 6.25 동란 때에도 소실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이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21-1. 구룡사 보광루



21-2. 구룡사 보광루 (측면)



21-3. 구룡사 보광루 (대웅전쪽에서)



21-4. 구룡사 보광루

龜龍寺尋劍堂 및 說禪堂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所草面 鶴谷 2 里 1029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龜龍寺事蹟記」 龜龍寺

3. 傳 說

義湘大師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심점당과 설선당은 대웅전 앞마당 좌·우에 위치한 승방인데 심점당은 조선후기의 건축물이나 설선당은 약 30 년전에 새로이 건립하였다고 한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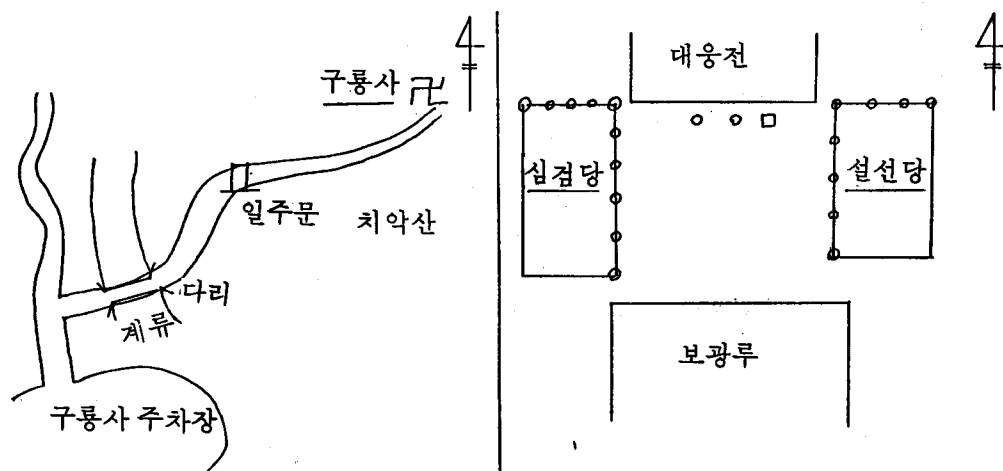
심점당은 正面 5 間, 측면 4 間の 맞배집으로 사찰에서는 고려말의 건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임진왜란 이후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선당은 正面 4 間, 측면 3 間の 八作집인데 새로 건축한 것이어서 각 부재가 심점당과는 대조적이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심점당의 기둥에는 약간의 배흘림(엔타시스)이 보여 주목되는데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건물이라도 古式을 따른 점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심점당이나 설선당은 사찰의 중심경내이고 특히 승려들의 기거처이므로 보존은 양호한 편이다.

이 2개의 건물중 심점당은 건축양식으로 보나 그 연대로 보아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1981)



22-1. 구룡사 심검당



22-2. 구룡사 심검당



22-3. 구룡사 설선당



22-4. 구룡사 설선당

龜 龍 寺 浮 屠 群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所草面 鶴谷 2 里 1029

2. 關 係 資 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 係 事 件 및 人 物

僧侶들의 墓塔임

5. 沿 革 및 事 蹟

一柱門을 들어서면 오른쪽 편에 넓직한 대지가 있고 이곳에 9 基의 石造浮屠가 안치되어 있다. 모두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石鐘形 浮屠인데 小・中形의 규모이다. 9 基中 주인공이 명시된 것은 5 基이고 건조연대가 명시된 것은 2 基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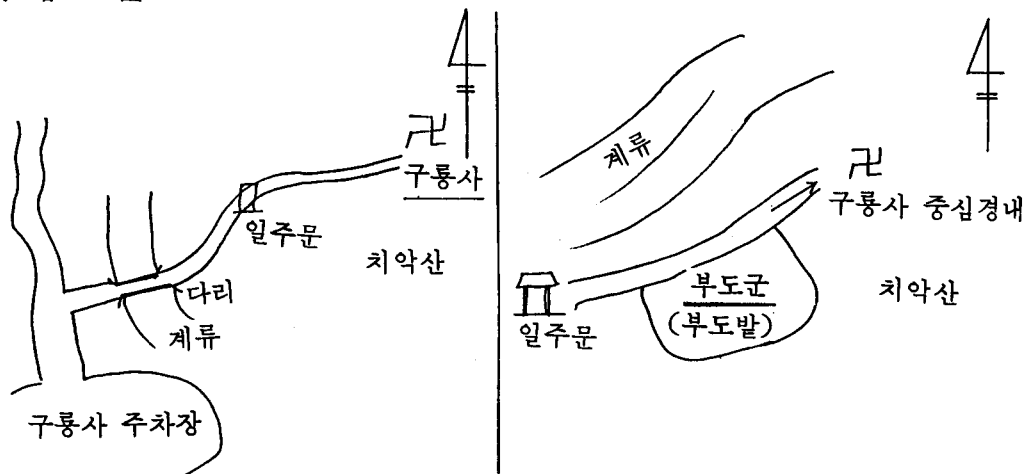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 ① 無銘부도……全高 1.68 m
- ② 無銘부도……全高 1.54 m
- ③ 「洗染堂楚雲大師塔」「乾隆十年乙丑四月日立」…石碑形으로 全高 82cm
- ④ 行願堂道先塔……全高 1.24 m
- ⑤ 冲處堂○大師之塔……全高 1.33 m
- ⑥ 無銘부도……全高 1.37 m
- ⑦ 無銘부도……全高 1.5 m
- ⑧ 「霜波堂大師○」「崇禎後三癸巳閏三月日立」…全高 1.07 m
- ⑨ 「海月○明○○」……全高 1.4 m

7. 遺物現況 및 特徵

여기의 乾隆十年乙丑은 조선 제 21 대 英祖 21 년 (1745) 에 해당하며
崇禎後三癸巳는 조선 제 21 대 英祖 49 년 (1773) 에 해당한다.
이 2 基의 석조부도는 절대연대가 있어 주목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넓직한 부도발을 이루고 있어서 환경도 좋으며 보존이 양호하다.

10. 參考文獻

없 음



23-1. 구룡사 부도군 (부도밭)



23-2. 구룡사 부도군 (부도밭)



23-3. 구룡사 부도군 (부도밭)



23-4. 구룡사 부도군 (부도밭)

興法寺眞空大師塔碑龜趺 및 螭首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517-2

2. 關係 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朝鮮金石總覽」 「朝鮮金石攷」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興法寺는 고려초기의 大刹로 이름났으며 특히 王建太祖의 王師였던 진공대사가 住錫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 龜趺와 螭首는 바로 진공대사 부도탑비의 부재로 碑身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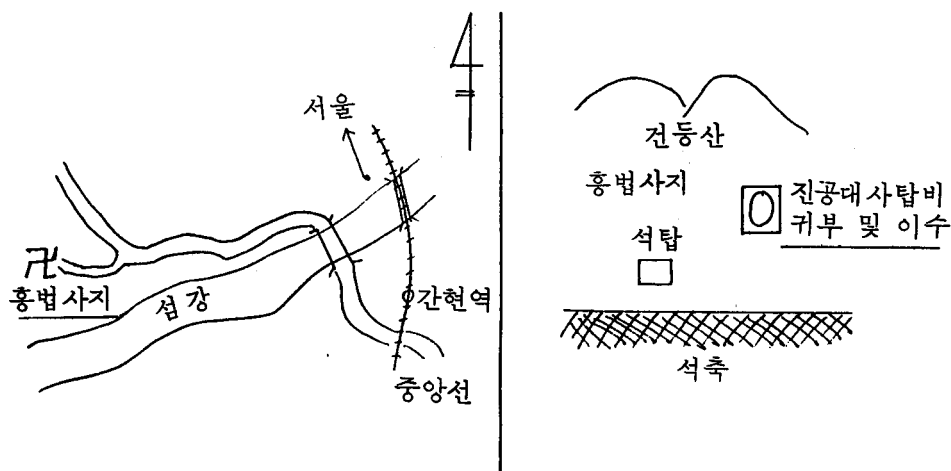
이 귀부와 이수는 원위치에 남아 있는데 귀부는 높이 1.05 m, 규모가 1.9 m × 2.45 m로 龍頭와 龜甲등 고려초기의 양식을 잘 보이고 있다.

이수는 높이 1.06 m, 규모가 76 cm × 180 cm로 龍들의 동체와 구름 문양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유물은 고려 太祖 23년(940)의 절대연대를 알 수 있으므로 石造物연구상 귀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귀갑문에 卍字가 새겨져 있음은 주목되는 일이며 각부의 조각이 고려초기의 웅건한 특징을 잘 보이고 있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보물 제 463 호로 지정되고 있으므로 보존은 양호하다.

그러나 주변일대의 寺址발굴에서 고려초기 興法寺의 규모와 성격을 밝혔으면 좋겠다.

10. 參考文 獻

「文化財大觀」 文公部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24-1. 홍법사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24-2. 홍법사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측면)



24-3. 홍법사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24-4. 홍법사 진공대사탑비 이수

興法寺址三層石塔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517-2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고려초기의 大刹이었던 興法寺 중심의 석탑이다.

원위치에 서 있으며 이 석탑을 중심으로 옛절터의 규모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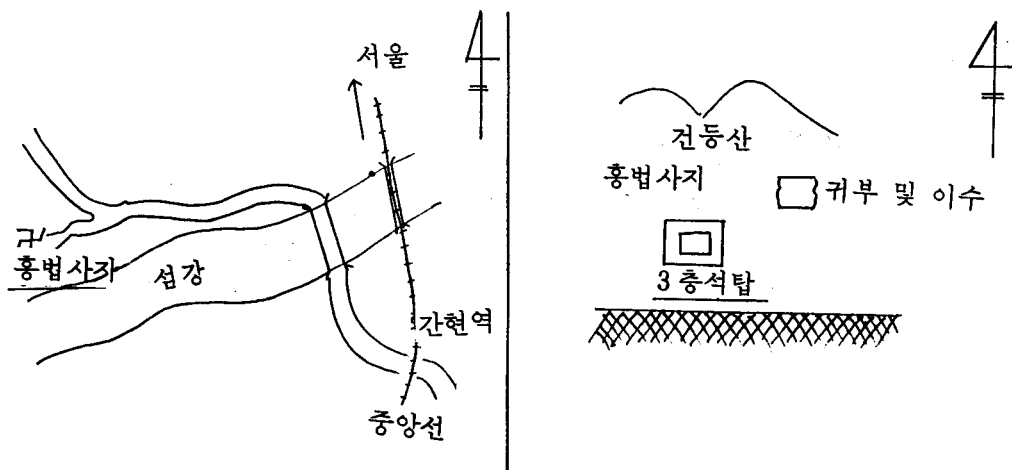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現高 3.69 m의 中形석탑으로 方形重層의 일반형석탑이다. 2층 기단위에 3층의 탑신을 형성하였는데 하층기단에는 각 면에 眼象 3區씩을 배치하고 상층기단은 양 우주와 1탱주를 모각해 놓았다. 탑신은 身·蓋 각 1石씩인데 각층 탑신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었으며 특히 초층탑신 南面에는 門扉와 자물통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받침이 4단씩이며 낙수면은 상단부가 급경사이다. 相輪部는 노반 1석뿐 만이다. 건립연대는 고려초기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이 석탑에서 주목되는 것은 하층기단 각면에 眼象이 둘러진 점이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유행되었는데 그 초기적인 작품이 아닌가 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보물 제 464 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존이 양호한데 이곳 興法寺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곳에는 거대한 石築이 원형대로 잘 남아있고 法堂址도 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일대를 발굴 조사하여 고려초기 寺院의 규모와 성격을 밝혔으면 좋겠다.

10. 參考文獻

「文化財大觀」 文公部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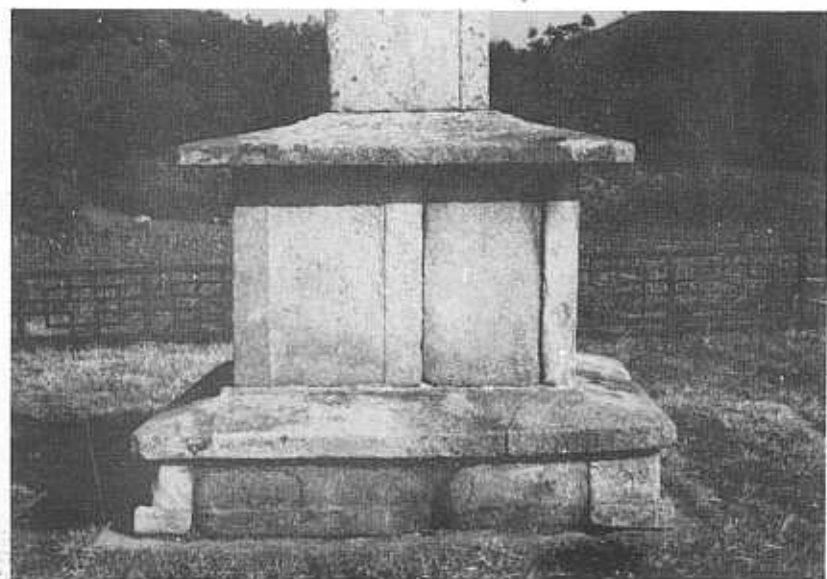
25-1. 홍법사지 3층석탑



25-2. 홍법사지 3층석탑



25-3. 홍법사지 3층석탑
(탑신부)



25-4. 홍법사지 3층석탑 (기단부)

甄 萱 城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文幕面 厚用里 山 3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後百濟를 세운 견훤이 이곳에서王建을 맞아 싸웠다고 전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견훤과 왕건으로 전함

5. 沿革 및 事蹟

후백제의 견훤이 이山城을 쌓고王建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하여 견훤성이라고 칭한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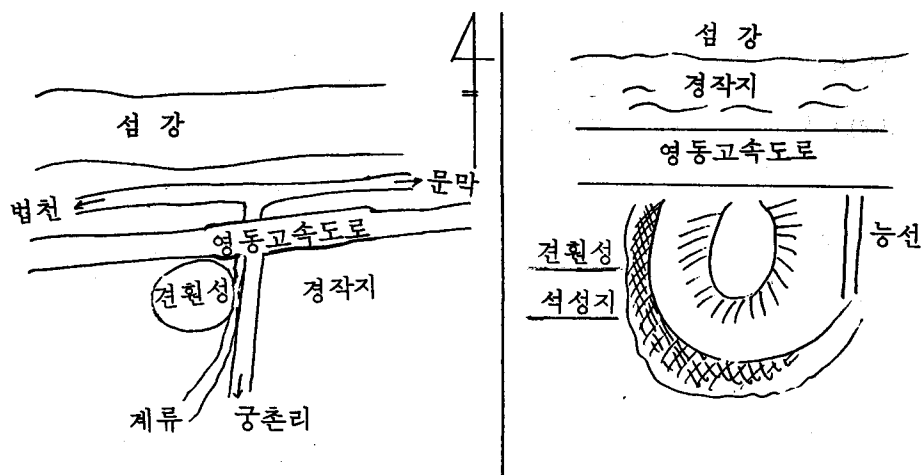
宮村里 어귀 오른편의 낮으막한 산에 능선을 따라 축성한 石城이다. 이곳은 영동고속도로가 바로 밑에 보이며 그 너머로 「섬강」이 흘러 남한강과 합류된다.

이山城의 水口는 북쪽이 되는데 과연 북쪽의 왕건을 맞아 싸울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성벽은 2 m ~ 2.5 m ~ 3 m의 완전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은 모두 허물어졌다. 약 100 m 길이의 石城址를 살필 수 있는데 古代의山城임은 분명한 것이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山城에 사용한 石材는 모두 小形들로서 이 山에서 채취되는 것이다. 남쪽이 절벽임으로 通例的으로 보아 남쪽의 적군을 맞아 싸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古式을 보이는 山城이고 특히 평야지대에 남아있는 요충으로서의 石城이므로 잘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면 좋겠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26-1. 전횡성 (서쪽 성터)



26-2. 전횡성 (서쪽 성터)



26-3. 전원성



26-4. 전원성 (북쪽 전망)

原城宮村里先史遺蹟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文幕面 宮村 2 里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이곳에서는 1973년 4월에 磨製石劍 1점, 磨製石刀 1점, 磨製石鏃 4점이 출토되어 당국에 신고된 바가 있다고 한다. 즉 원래는 이곳에 거주하던 金福禮씨가 신한승씨에게 양도한 밭을 경작하던중 신한승씨에 의하여 수습된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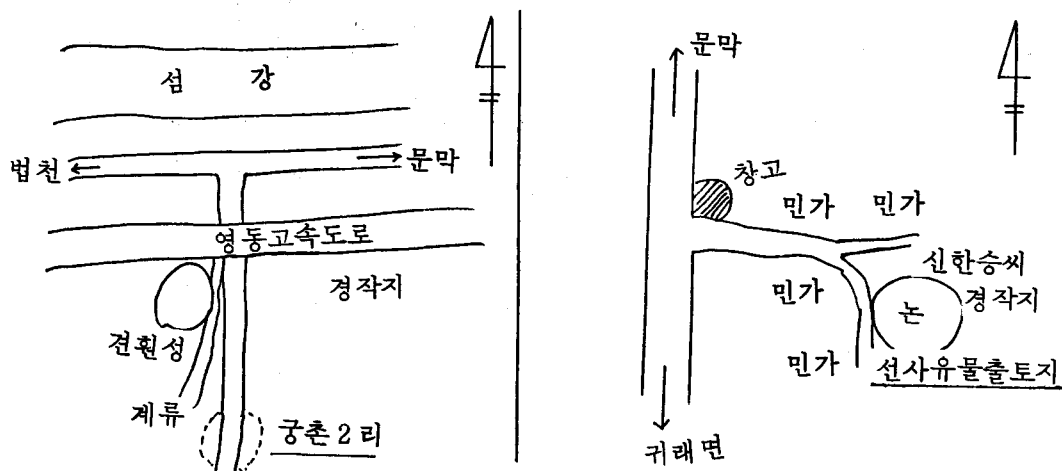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현재 유물이 출토된 지점은 논으로 변해져 있는데 당시 신한승씨는 이 밭을 논으로 만들기 위하여 경작하다가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주변 일대를 논으로 만들었으나 다른 유물이 출토된 바는 없다고 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지점은 宮村里 마을앞을 흘러 「섬강」에 합류하는 작은 냇물이 있으며 이 유역은 넓은 평야로서 일찍부터 인류가 생활할 수 있었던 곳이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논으로 변해져 해마다 경작하고 있으므로 출토지점의 보존은 잘 되고 있으며 주변 洞民들도 인식이 잘 되어 있어 앞으로 다른 유물이 출토된다 하더라도 차질없이 당국에 신고할 것으로 생각된다.

10. 參考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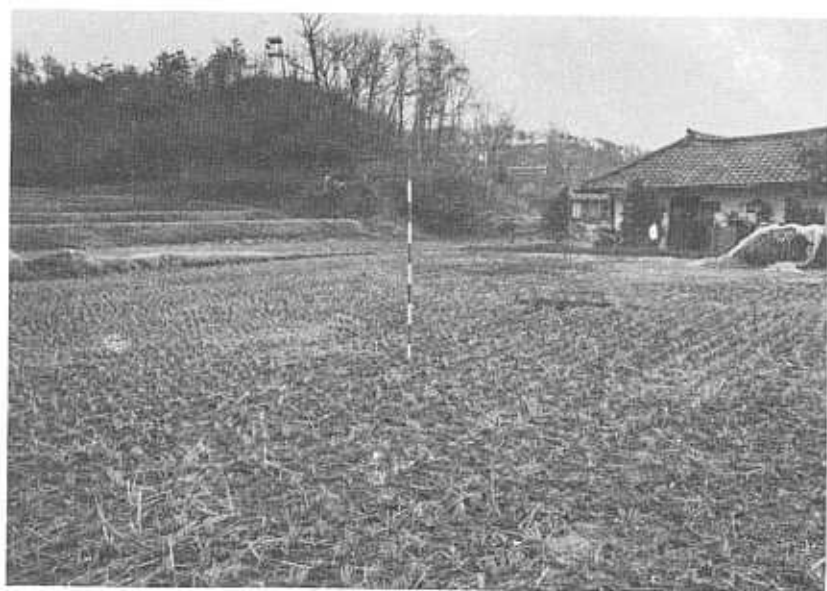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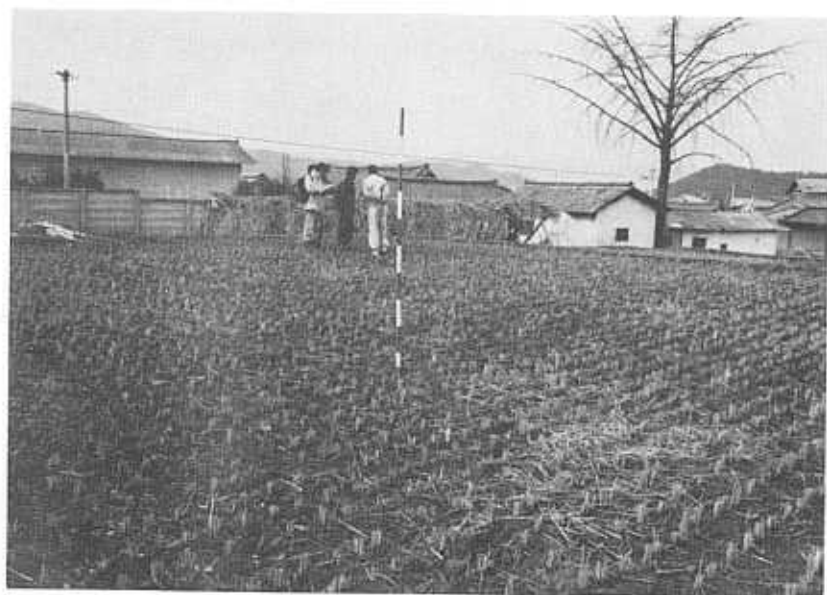
27-1. 원성 궁촌리 선사유적지



27-2. 원성 궁촌리 선사유적지



27-3. 원성 궁촌리 선사유적지



27-4. 원성 궁촌리 선사유적지

興 原 倉 址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興湖 2 里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뱃터」라고도 전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이곳은 문막쪽으로부터 흘러오는 「섬강」이 남한강 주류와 합류되는 곳으로 강원도의 原州·平昌·寧越·旌善·橫城·江陵·三陟·蔚珍·平海등지를 관할하여 稅穀을 운반 보관하던 장소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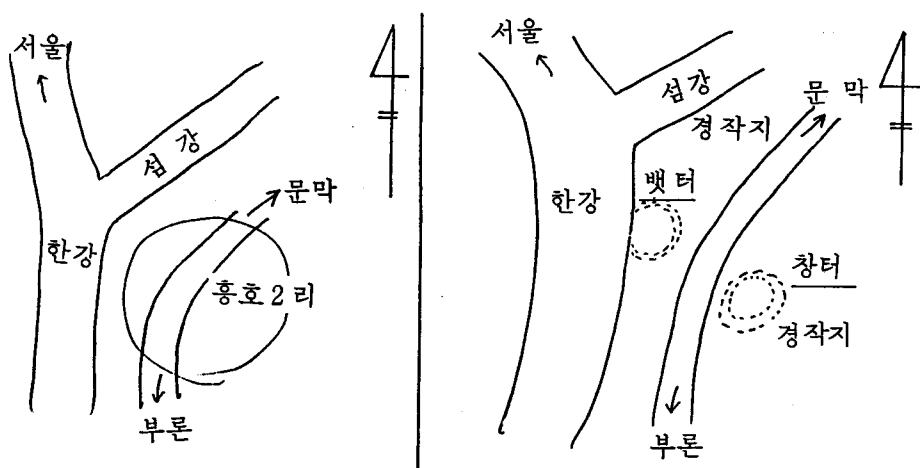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지금도 뱃터라고 일컫는 이곳에 대해서는 「홍창지」 또는 「홍원창지」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 일대가 경작지로 변하고 또는 큰 車道로 변하고 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그러나 6.25 동란 이전에도 뱃터가 몇군데 있어서 장터가 여기 저기 있었다고 하는데 「丙子年 장마」에 모두 떠내려 갔다는 것이 이곳 주민 朴大植(51才, 興湖2里 857 거주)씨의 증언이다.朴씨가 젊었을때 이곳 장터와 뱃터를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지금은 옛창고나 뱃터가 전혀 없으나 「興原倉」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임을 생각할 때 「興原倉址」를 알 수 있는 표석이라도 만들어 세워 놓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종래의 漕倉과 漕運은 경제, 사회와 밀접했던 역사적인 소산이기 때문이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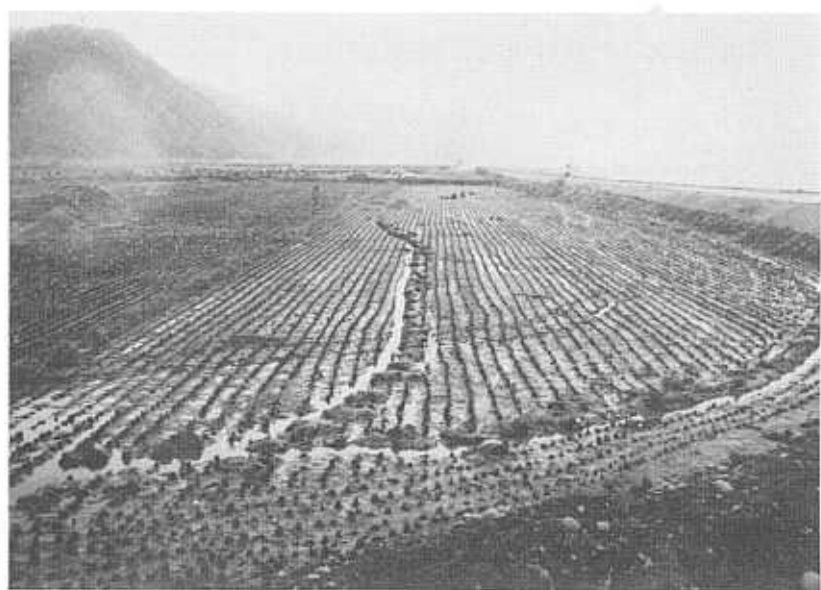
28-1. 홍원창지 (뱃터)



28-2. 홍원창지 (뱃터)



28-3. 홍원창지 (뱃터)



28-4. 홍원창지 (창고터)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 144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朝鮮金石總覽」 「朝鮮金石攷」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居頓寺를 크게 일으킨 圓空國師의 基塔碑이다.

國師의 부도탑은 현재 서울 경복궁내에 옮겨져 있어 보물 제 190 호로 지정 보존되어 있다.

이 탑비는 거둔마을 동쪽 산기슭에 세워져 원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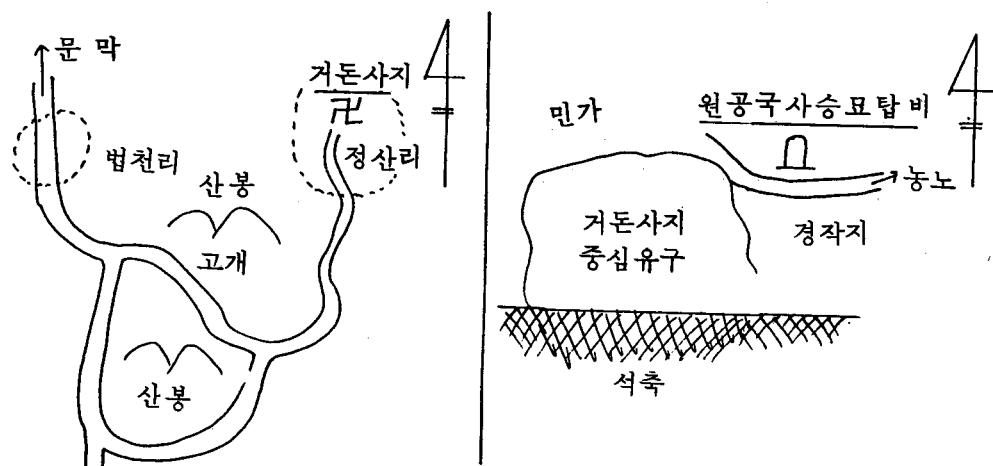
龜趺위에 碑座를 마련하여 碑身을 세우고 螭首를 얹어 놓은 신라 이래의 일반형 석비의 형태이다.

全高 4.85 m의 규모로 귀부는 靜的이며 이수 또한 생동감이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10 세기의 초기적인 作風에서 떨어진 현상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비좌의 眼象이나 이수의 龍頭, 雲紋 등은 당시의 조각을 대표하는 것으로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고려 제 8 대 顯宗 16 년 (1025) 의 절대연대를 알 수 있으므로 龜甲의 卍字紋과 眼象內의 고사리紋등은 문양사연구에 좋은 자료라 하겠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보물 제 78 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존이 양호하며 주변도 정결한데 다만 앞쪽의 통로가 바튼편이어서 이곳 일대를 확장하게 되면 잔디를 심어 주변을 정화하였으면 좋겠다.

10. 參考文獻

「文化財大觀」 文公部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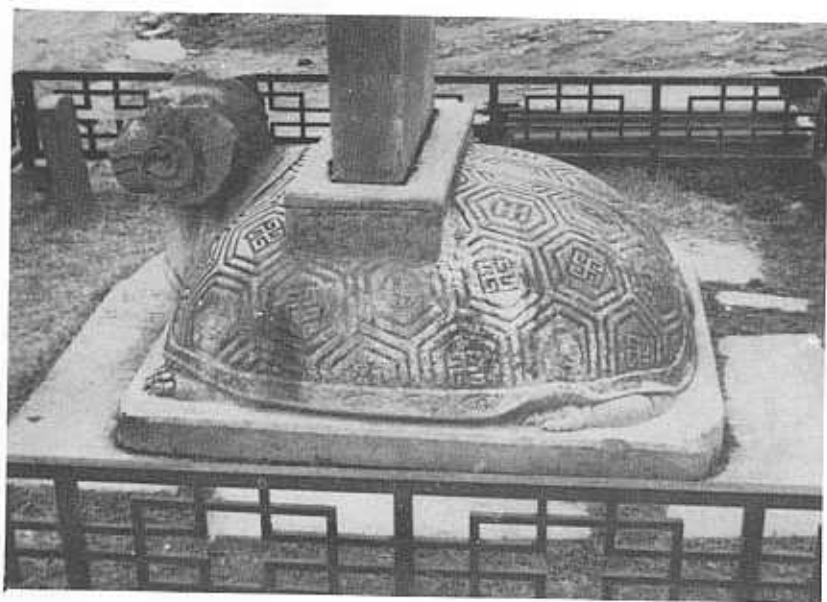
29-1. 거문사 원공국사 승묘탑비



29-2. 거문사 원공국사 승묘탑비



29-3. 거둔사 원공국사 승묘탑비 이수



29-4. 거둔사 원공국사 승묘탑비 귀부 (측면)

居 頓 寺 址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 189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고려시대에 크게 法燈을 일으켰던 居頓寺 옛터로 지금도 거대한 석축이 옛모습대로 남아 있다.

대지에는 옛 법당터가 남아 있고 그 앞에 3층석탑(보물 제 750호) 1基가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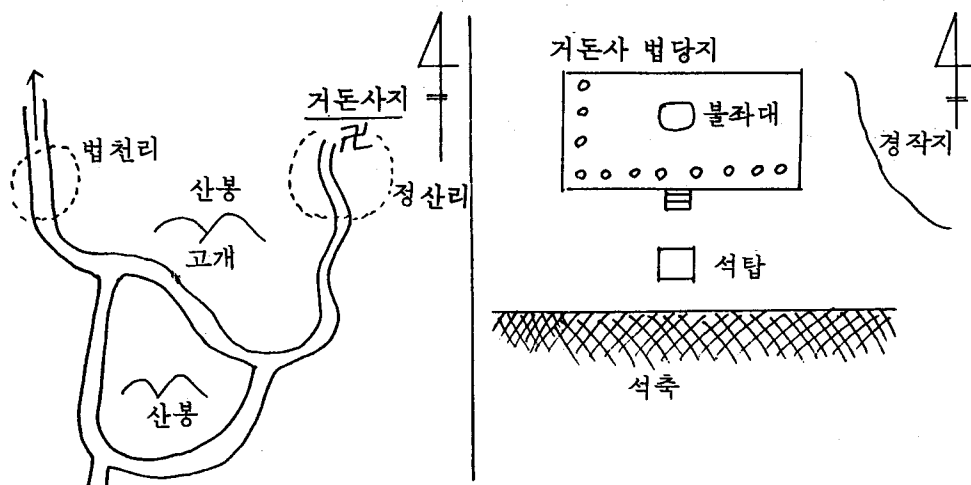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石築은 2.5 m ~ 4 m 높이로 55 m 길이가 남아 있으며 서쪽 옆으로는 10 m 길이가 남아 있다. 특히 이곳의 법당지는 정면과 뒷면에 계단이 정연하고 사방의 면석과 갑석 또한 정연하다. 그리고 법당은 현재 남아 있는 주초석의 배열로 보아 正面 5間, 측면 3間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법당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石造佛座台인데 높이가 2 m로 大形에 속하는 것이다. 법당지도 33 m × 20 m, 높이 1.4 m이므로 다른 곳의 법당에 비하면 규모가 큰 편이라 하겠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사적 제 168 호로 지정되었으므로 보존은 양호하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郡 당국에서 주변을 정화하여 보호철책을 돌렸으므로 앞으로도 보존은 좋을 것이나 안쪽의 마을 일대에도 관심을 두어 寺址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10. 參考文獻

「文化財大觀」 文公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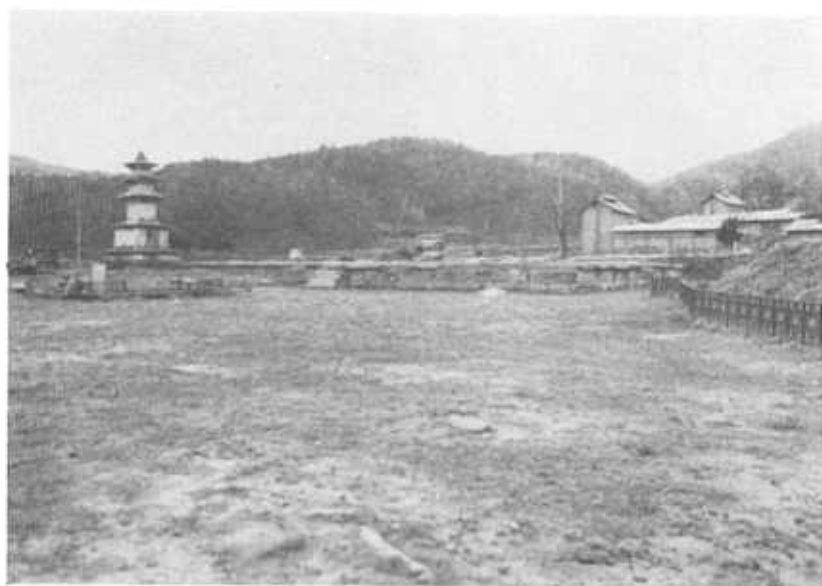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30-1. 거둔사지 석축



30-2. 거둔사지



30-3. 거둔사지 법당지



30-4. 거둔사지

居 頓 寺 址 三 層 石 塔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 189

2. 關係 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居頓寺 가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법당앞의 石塔으로 현재가 원 위치이며 전고 5.45 m이다.

여러개의 面石으로 넓직한 基台를 마련하고 그 중앙에 석탑을 안치하였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2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형성하고 정상에 상륜부를 장식한 典型的인 신라식 일반형 석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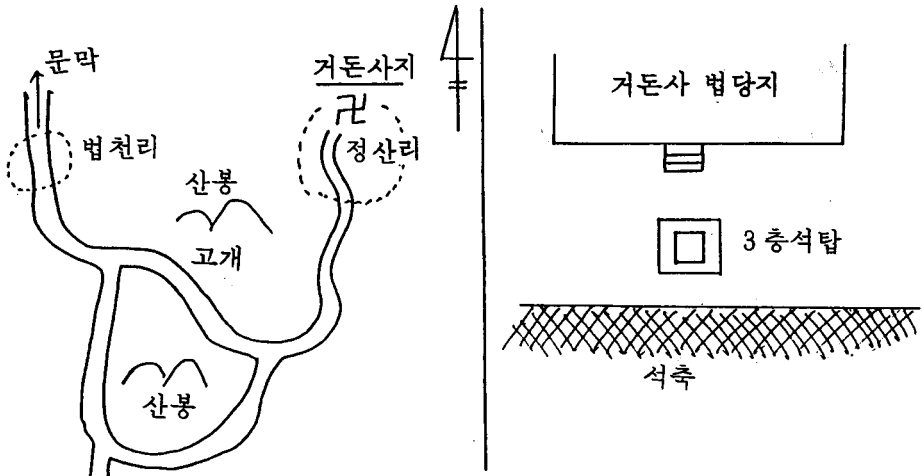
상·하층기단에는 양 우주와 1탱주가 정연하게 모각되었고 탑신부는 身·蓋가 각 1석씩이다. 각층 탑신석에는 양우주가 정연하며 옥개석에는 하면에 받침이 5단씩이고 정상에는 2단의 괴임이 있어 윗층을 받고 있다.

상륜부는 노반과 보주형 1석이 남아 있을 뿐이다. 기단부의 형태와 옥개석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 하대의 건립으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석탑의 낙수면은 平薄하고 네귀퉁이 轉角에 返轉이 있어 경쾌하며 풍경을 달았던 작은 구멍이 있어 당초에는 장중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이 석탑은 보물 제 750 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한국석탑의 변천등 연구상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考古美術」1, “原州의 寺蹟 興法・法泉・居頤” (鄭永鎬)



31-1. 거둔사지 3층석탑





31-3. 거둔사지 3층석탑



31-4. 거둔사지 3층석탑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74-2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朝鮮金石總覽」 「朝鮮金石攷」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法泉寺를 크게 일으켰던 智光國師의 墓塔碑이다. 國師의 墓塔인 「玄妙塔」은 현재 서울 경복궁에 옮겨져 있어 국보 제 101 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이 탑비는 碑殿의 원위치에 남아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龜趺위에 碑座를 마련하여 碑身을 세우고 정 상에 螭首를 올려놓은 신라이래의 일반형 석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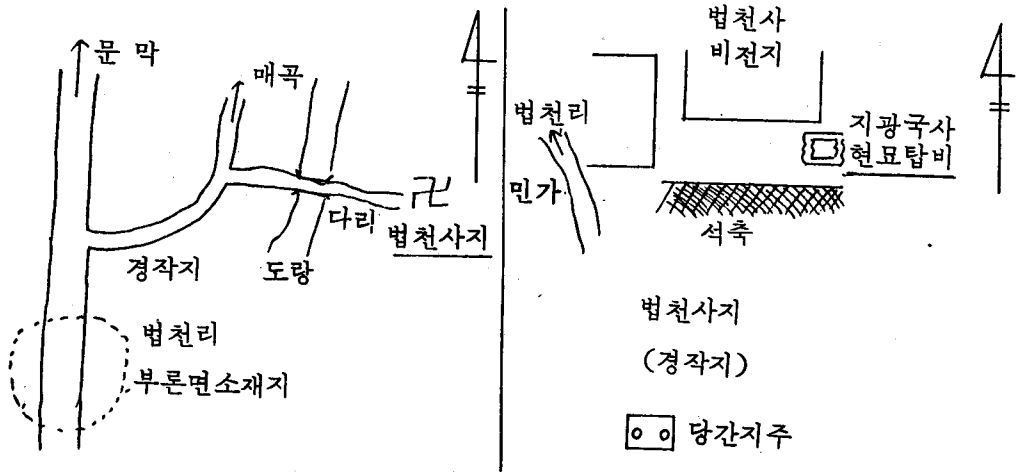
그러나 이 석비에서는 여러 부분에 주목된다. 우선 귀부에서 생동감이 나는龍頭와 4足, 龜甲內의 王字紋등은 다른 곳에서 보기도 문 특징적인 것이고 비좌에서도 유려한 伏蓮은 주목된다.

螭首도 정상의 보주까지 화려하게 조성하였는데 더더욱 주목되는 것은 碑身石의 좌·우 측면에까지 용틀임을 가득히 조각한 것은 드문 일이라 하겠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석비는 全高 5.5 m, 건립연대가 고려 宣宗 2년(1085)이란 절대 연대가 있으므로 여기에 연꽃문이나 용문양, 각종 꽃문양 등은 문양사연구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이 석비는 국보 제 59 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존이 양호하다. 특히 1965 년도에 이곳 碑殿을 정비하여 다른 부재들도 수습하였으므로 주변이 잘 정화되어 있다. 다만 이 석비의 비신에 금이 가 있어서 앞으로의 보존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10. 參考文獻

「文化財大觀」 文公部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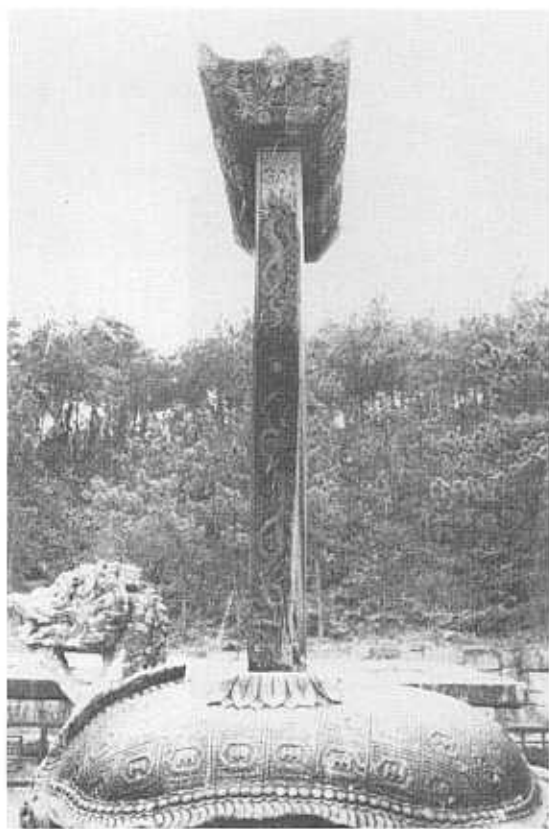


32-1.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32-2.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뒷면)

32-3.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측면)



32-4.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귀부

原城法泉里古墳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1532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古墳의 위치는 흥병주씨(法泉里 1532 거주) 소유의 밭 한가운데인데 1973년 4월 25일 모래땅을 밭으로 갈다가 두개의 石室墓를 발견하고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고분이고 유물이다.

당시 문화재 관리국의 매장문화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였던 金元龍박사가 이 일괄 유물들을 보고 현지를 찾아 출토지점을 확인한 바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일괄 유물은 三國時代土器類, 鐵製馬具・武器, 한개의 中國 六朝時代 初期青磁羊形器 및 숫돌 1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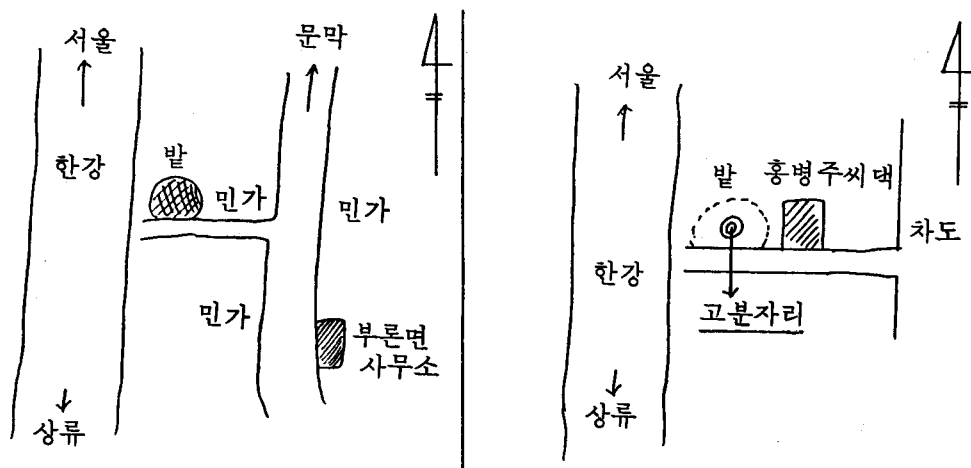
고분은 石槨墓로서 모두 파손되어 그 石材들이 현재 땅속에 묻혀 있는데 여기서 수습된 유물들이 주목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特記할 것은 青磁羊形器가 중국 六朝時代 초기청자인 것이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러한 三國期 초기의 유물들이 이곳에서 출토되었음은 이곳에 일찍부터 인류가 생활하였었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지점은 바로 남한강 주류의 연안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 略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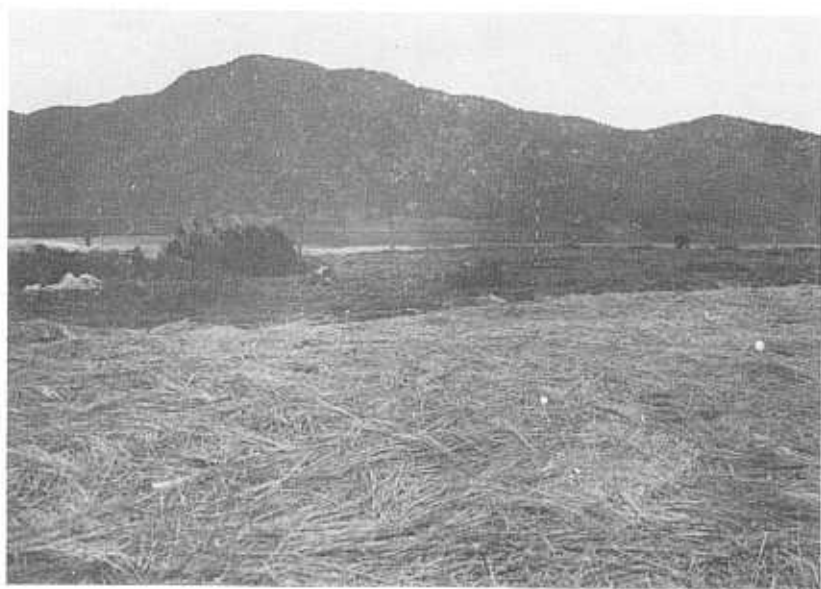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고분은 비록 파괴되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나 귀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므로 이 일대의 보존은 잘 되고 있다.

10. 參考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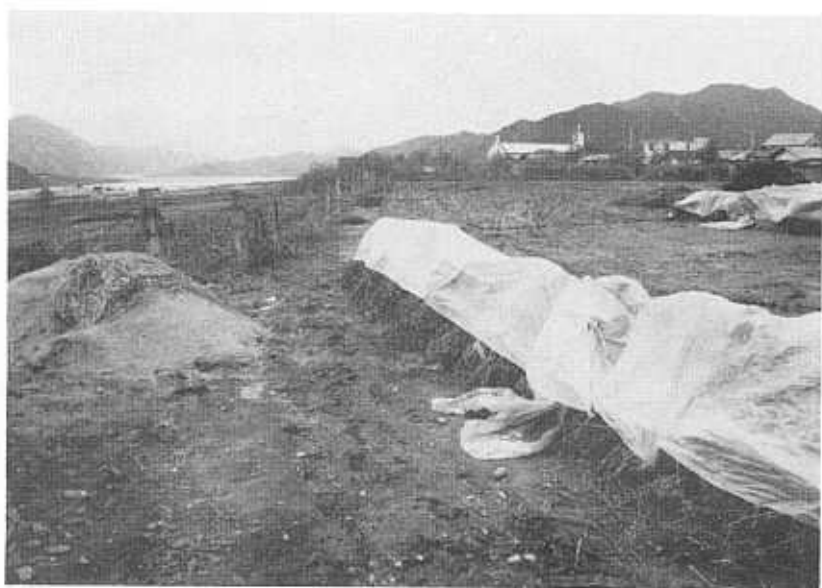
「考古美術」120, “原城郡 法泉里 石槨墓와 出土遺物”(金元龍)



33-1. 원성 범천리 고분지



33-2. 원성 범천리 고분지



33-3. 원성 법천리 고분지



33-4. 원성 법천리 고분지

法 泉 寺 址 幢 竿 支 柱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74-92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法泉寺址 南쪽 원위치에 건립되어 있다.

주변 일대는 밭으로 변해져 있으며 이 당간지주는 石築을 쌓은 넓직한 대지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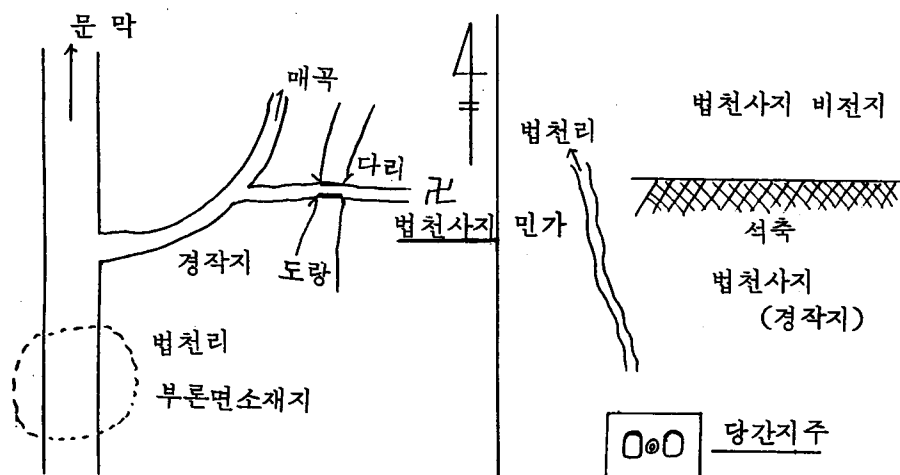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양 지주가 상대해 동·서로 서 있는데 全高 3.9 m로 中形에 속한다. 상단에는 당간을 고정시켰던 간구가 있으며 그 外面은 부드러운 弧形을 이루고 있다. 당간을 받았던 간대가 원위치에 잘 남아있어 주목되는데 圓形으로 다듬고 그 중심에는 돌기가 있어 당간을 놓도록 되어 있다. 건립연대는 고려 전반기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주목되는 것은 양지주 상단의 부드러운 곡선과 돌기로 이루어진 간대이다.

8. 略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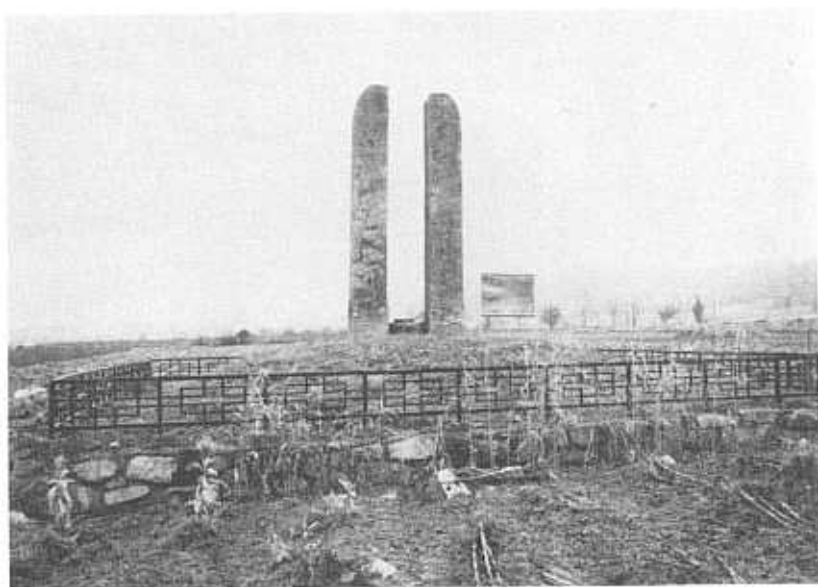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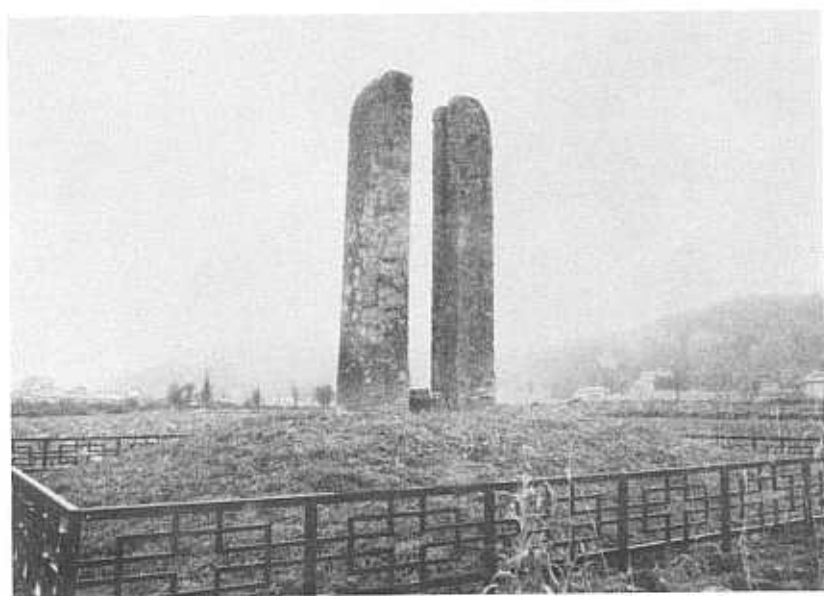
보존상태도 좋고 원형을 갖추어 원위치에 남아 있으므로 보물급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10. 參考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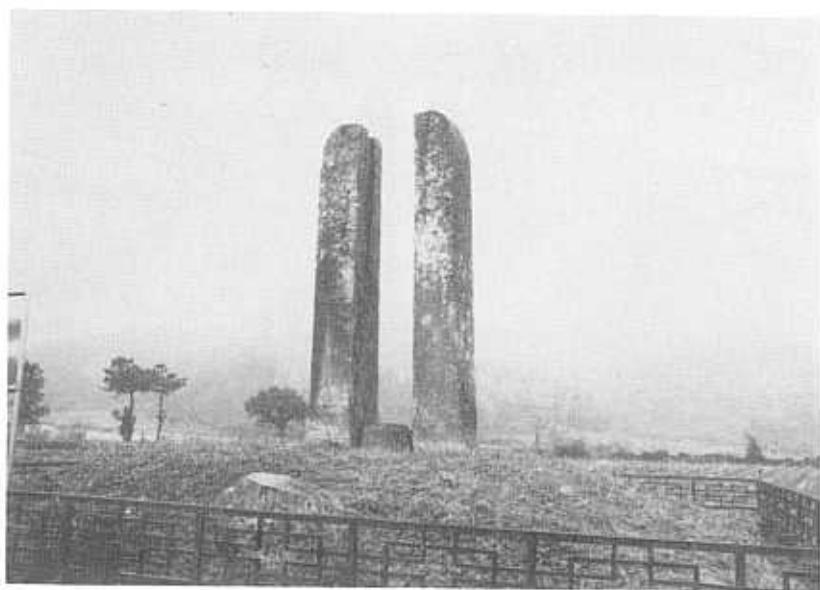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34-1. 법천사지 당간지주



34-2. 법천사지 당간지주



34-3. 법천사지 당간지주



34-4. 법천사지 당간지주 간대부분

法泉寺址石造物部材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74-2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法泉寺 碑殿에 주변에서 수습한 많은 石物들을 진열 보존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석탑의 部材, 불상광배, 기타 조각석등 다채로운 석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석탑부재는 옥개석 2枚, 탑신 1石, 기단갑석 1枚등인데 탑신에는 양우주가 있고 옥개받침은 4단석이며 갑석에는 탑신피임대가 모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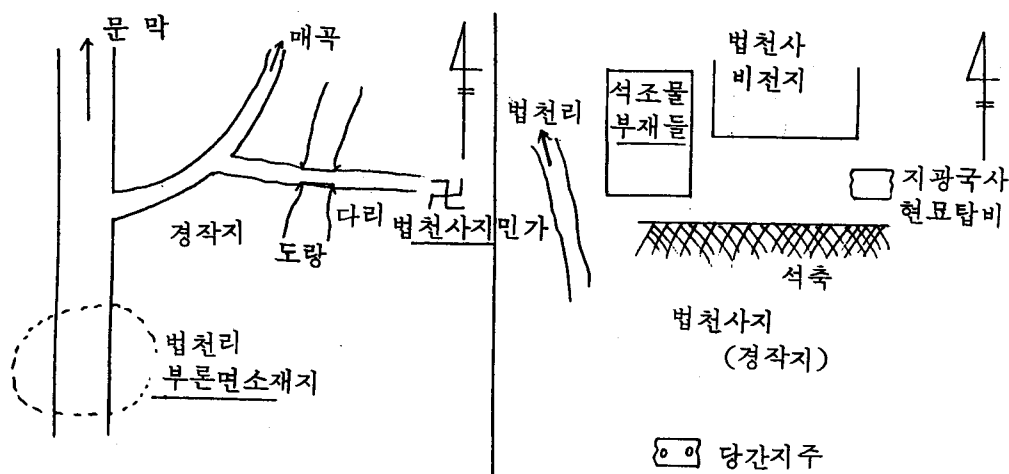
광배는 全高 1.33 m의 寶珠形이며 중앙에 큼직한 二重의 圓光이 있고 주연에는 화염문이 유려하다.

배례석(127 cm × 63 cm)은 상면에 연화좌가 있고 측면에는 眼象이 둘러져 있다. 이들은 모두 고려 전반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곳의 智光國師玄妙塔碑와도 같이 모든 조각이 화려하고도 예리하며 다채로워서 고려시대 석조물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하겠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碑殿과 더불어 보존은 잘 되고 있으나 이밖에도 이곳 법천사지에는 많은 석조물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들을 수습 보존해야 할 것 인바 이에 앞서 寺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寺址에 대한 발굴조사의 先行을 뜻하는 바라 하겠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高麗法泉寺智光國師塔碑殿址調査概要」 韓國美術史學會刊 (1966)



35-1. 법천사지 석조물부재



35-2. 법천사지 석조물부재



35-3. 법천사지 석조물부재



35-4. 법천사지 석조물부재

原 城 契 丹 族 激 退 地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매곡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法泉里에서 「맷골」로 넘어가는 「붉은 덧고개」가 바로 거란족들을 격퇴시켰다고 하는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즉, 「장뜰부락」의 붉은 덧고개를 넘으면 부론면 송곡리에 이르게 되는데 이 중간지점이 契丹族이 原州에 침입하였을 때 官軍을 이끈 金就勵 장군에 의해 이곳에서 크게 승리하고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하여 박달재에서 다시 싸워 크게 이겼다고 한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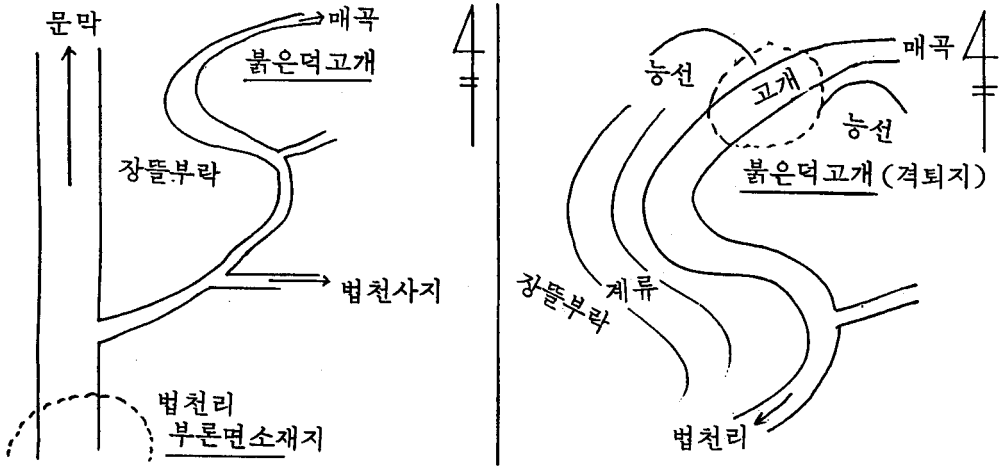
현재 5 m의 路幅으로 車道가 개설되어 있으나 이전에는 높은 언덕이어서 적군을 맞아 싸울 장소로는 적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산기슭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있어서 천험한 요충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고개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고개넘어 또 다른 부락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 않는데 실제 고개넘어에는 넓은 평지가 있어 아군이 주둔하기에는 족했을 것이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거란군 격퇴지로 구전되어 올뿐 이곳에는 아무런 유적도 없다. 그러므로 더욱 확실한 고증이 있는 후에 이곳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표석이라도 세우면 좋겠다.

10. 參考文獻

없 음



36-1. 원성 거란족 격퇴지 (원경)



36-2. 원성 거란족 격퇴지



36-3. 원성 거란족 격퇴지 (고갯길)



36-4. 원성 거란족 격퇴지 (매곡전망)

原城貴來里三層石塔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貴來面 貴來1里 탑상동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본래는 바로 옆 논두렁에 쓰러져 방치되어 있던것을 수습하여
1982년 4월에 현재의 자리에 복원하였다고 한다. 주변 일대는 현
재 논과 밭의 경작지로 변해져 있으나 본래는 절터였던 곳으로
현재도 주변에서는 기와와 자기편을 볼 수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높직한 지대석 상면에 괴임대를 마련하고 단층기단을 구성하였는데
각 면에는 양 우주가 정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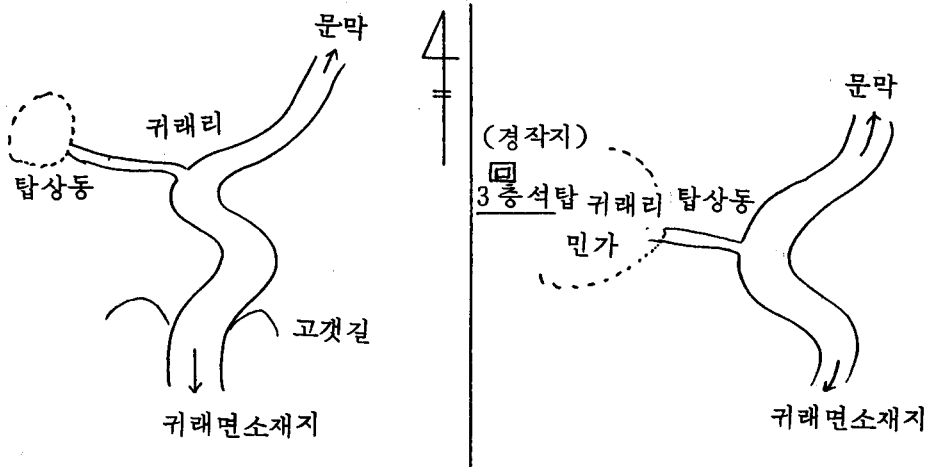
1枚의 板石으로 조성된 기단갑석은 하면에 부연이 있고 상면에는
2단의 괴임을 마련하여 탑신부를 받고 있다.

현재 1층 탑신석이 있고 그 위에 3개의 옥개석이 놓여 있는데
옥개받침은 가늘게 3단이 표현되어 있다. 현 全高 2.1 m의 小形
塔인데 건립연대는 고려 전반기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지대석의 구성과 기단갑석의 부연등이 주목되는 양식이다. 고려시대 전반기라 하더라도 후엽으로 뒤지는 특징을 보인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동리에서 합심하여 복원해 놓았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보존이 양호하다. 주변을 정비하여 보존철책을 가설해 놓았으면 좋겠다.

10. 參考文獻

없 음



37-1. 원성 귀래리 3층석탑



37-2. 원성 귀래리 3층석탑



37-3. 원성 귀래리 3층석탑 탑신부



37-4. 원성 귀래리 3층석탑 기단부

黃山寺三層石塔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貴來面 周浦里山 25-2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옛 黃山寺 절터에 건립된 석탑으로 원위치에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全高 2.8 m의 小形탑인데 2枚의 板石으로 짜여진 지대석 위에 別石으로 조성한 各層 2단의 괴임석을 놓고 3층의 塔신을 形成하였다.

塔신부는 身·蓋 각 1석씩으로 各層 塔신에는 양우주가 정연하고 各層 옥개석 하면에는 3단씩의 받침이 높직하게 刻出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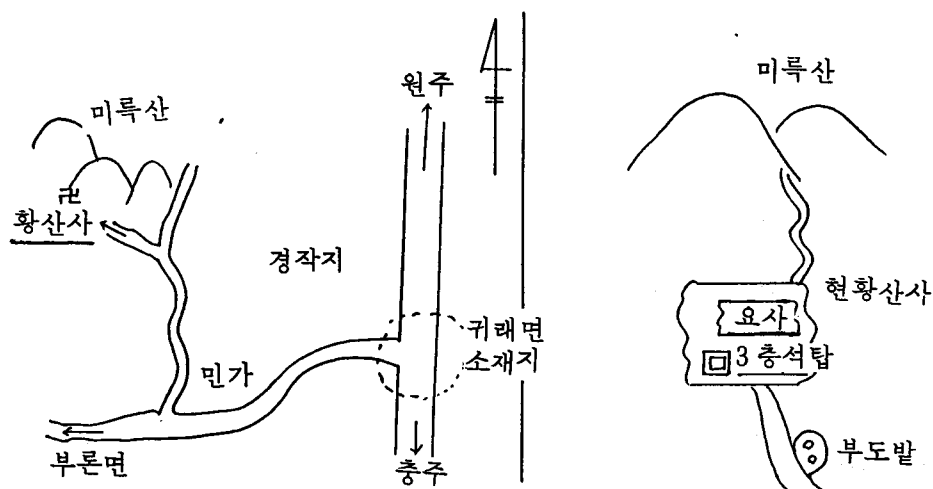
낙수면은 평박한 편이나 정상부에 괴임대는 없다.

각부의 양식으로 보아 건립연대는 고려시대 전반기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기단부가 생략된 점이 특이하며 옥개받침이 높직한 것도 또한 주의
의를 끈다. 고려전반기라 해도 후엽으로 떨어지는 作風을 보이고 있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의 黃山寺 경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보호철책을 돌려 보존이
양호한데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그것은
기단부와 옥개석이 특이하여 지정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10. 參 考 文 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38-1. 황산사 3층석탑



38-2. 황산사 3층석탑

38-3. 황산사 3층석탑
탑신부



38-4. 황산사 3층석탑 하층부

原城周浦里磨崖如來坐像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貴來面 周浦里 山 25-2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현 黃山寺에서 뒷편 「미륵산」 정상에 東向한 암벽을 이용하여 거대한 좌상 1구를 조각해 놓았다.

그러므로 불상바로 밑에 黃山寺가 보이며 주변 일대가 眼下에 굽어보여 雲上界임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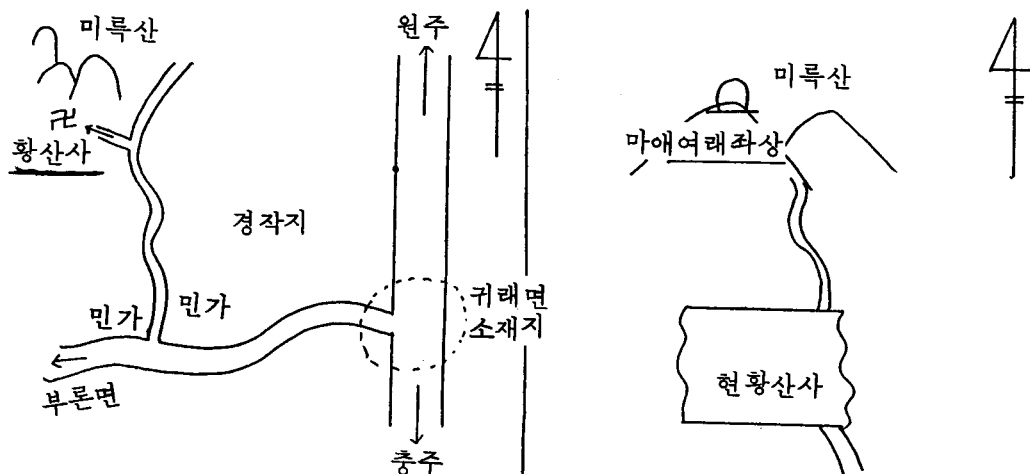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佛像은 全高 약 10 m인데 화사한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여래상이다. 연화좌는 양련으로서 겹겹이 중첩된 연봉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심부에는 마손으로 조각이 희미하고 좌·우 양단부만이 뚜렷하다. 素髮의 머리위에는 낮은 육계가 있고 相好 각부는 릴리프가 강하여 鼻樑이 오목하다. 양쪽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두키는 길다랗고 목에는 三道가 둘러져서 위엄이 있어 보인다. 法衣는 通肩인데 오른쪽 어깨부분의 암벽에 금이가 있고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며 胴體부분에 두꺼운 靑苔가 끼고 마멸이 심하여 手印과 衣文등의 조각이 선명하지가 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시대 전반기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규모가 거대한 점과 화사한 연화좌이다. 相好
자부가 큼직큼직하게 조각된 것은 불상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이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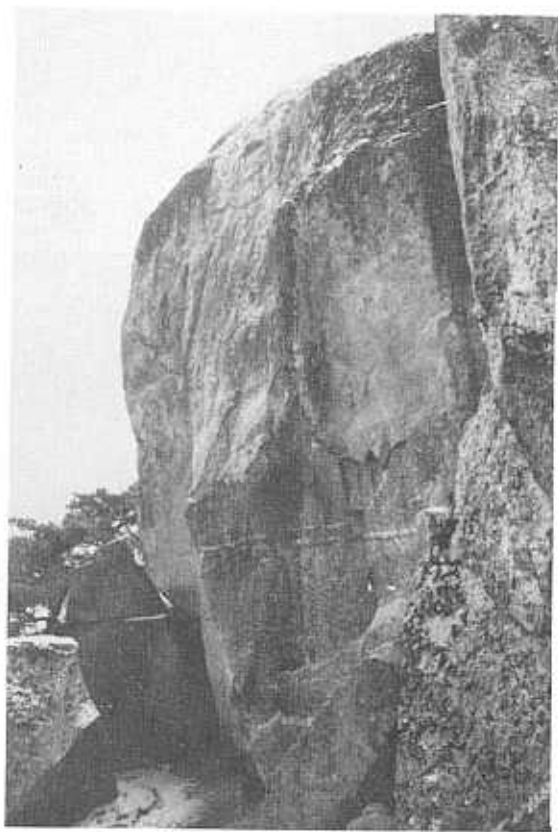
신도들과 등산객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보존은 그런대로
양호하나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했으면 더욱 좋겠다. 그것은 규모가
큰점과 고려 초반의 마애불이기 때문인 것이다.

10. 參考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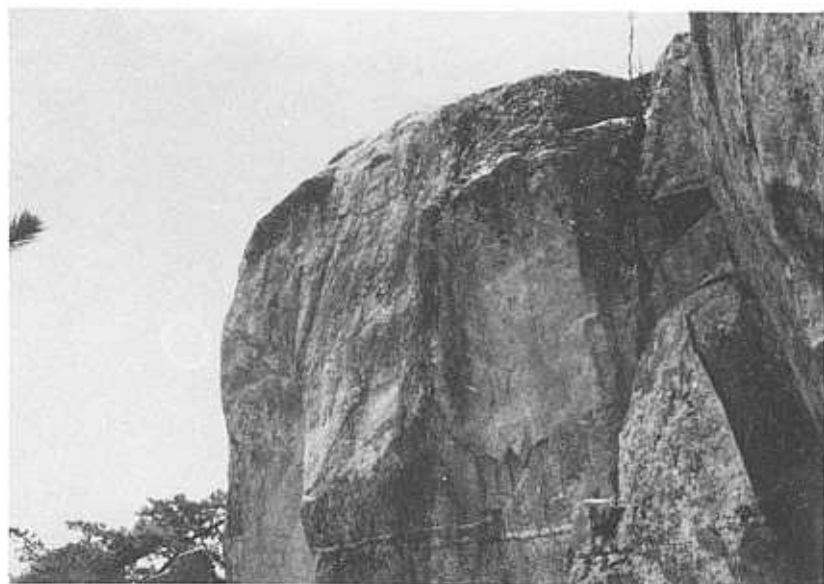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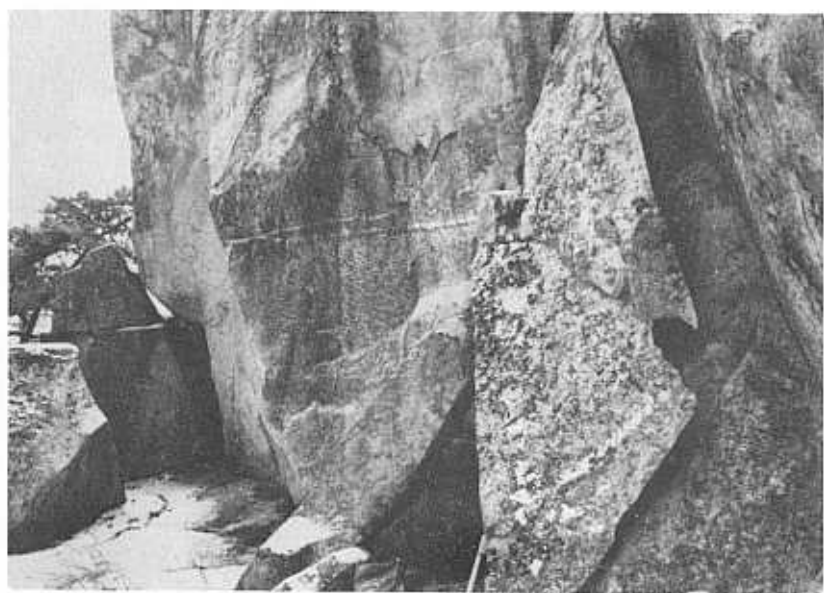
39-1. 원성 주포리 마애여래좌상 (원경)



39-2. 원성 주포리 마애여래좌상



39-3. 원성 주포리 마애여래좌상



39-4. 원성 주포리 마애여래좌상 하부

黃 山 寺 址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貴來面 周浦里 山 25-2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현재 黃山寺가 자리잡고 있는 일대가 옛 黃山寺 절터이다. 지금의 황산사는 석조대웅전, 목조산신각, 요사채등 3棟의 건물이 있는데 이 밖에 흩어져있는 석조물은 모두 옛 황산사 유물인 것이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석등대석으로 연화대석(높이 36 cm, 직경 55 cm)과 8각간석편(높이 49 cm, 42 cm) 2石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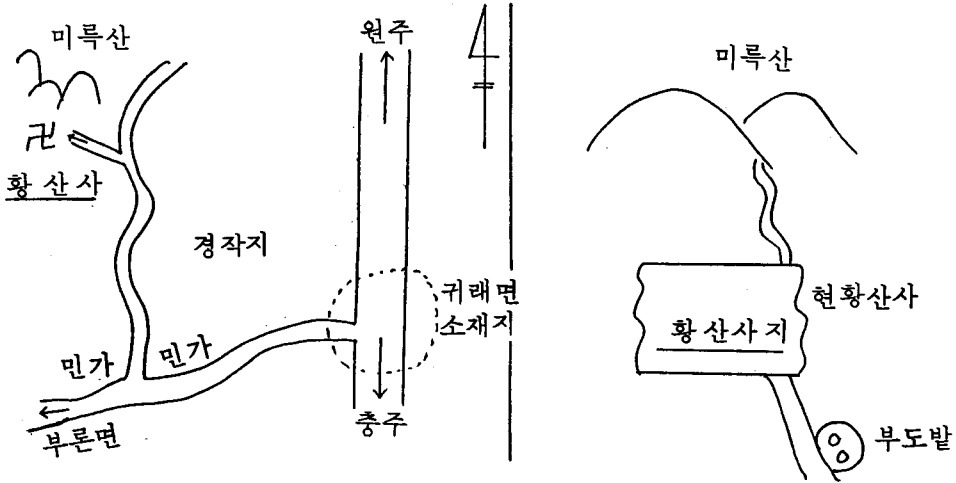
이 밖에 석조부도 2基가 있는데 鶴西堂浮屠(全高 1.5 m)와 西應堂浮屠(全高 1.42 m)이다. 이들은 石鐘形부도로 台石 1石, 탑신 1石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산사 절터는 고려시대이고 석등부재도 고려시대 조성품들이나 부도는 2基가 다 조선시대 후기의 조성이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鶴西堂부도는 台石과 寶珠에 큼직한 앙련이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옛 황산사터는 이미 파손되었으나 경내에 흩어져 있는 석조물들을 수습 관리하였으면 좋겠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40-1. 현 황산사 대웅전



40-2. 현 황산사 산신각



40-3. 현 황산사 요사



40-4. 황산사 부도밭

鵠 鷗 山 城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板富面 金垵里 山 2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源城郡 편

推出 : 三國史記 卷第 50 列傳 第 10 弓裔條

「景福元年壬子 投北原賊梁吉 吉善遇之 委任以事
遂分兵使東略地 於是出宿雉岳山 石南寺 行襲酒泉
奈城 鬱烏御珍等縣 皆降之」

3. 傳 說

궁예가 진을 쳤던 곳이라 전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궁예와 양길을 추측할 수 있음.

5. 沿革 및 事蹟

三國史記 기록에 보이는 「雉岳山」과의 관계인물을 弓裔와 梁吉로
생각할 때 이들이 축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아직 고증의 자
료가 희박하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鵠鷗寺 바로 뒷편 산 능선에 축성한 石城인데 밖의 벽은 절벽을
이루고 안쪽은 낮은 편이다.

현재 東門址라 칭하는 곳이 있어 폭 1.64 m가 틀려 있는데 이것
은 고식의 출입문을 연상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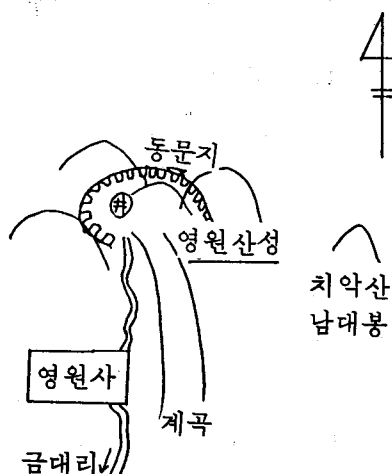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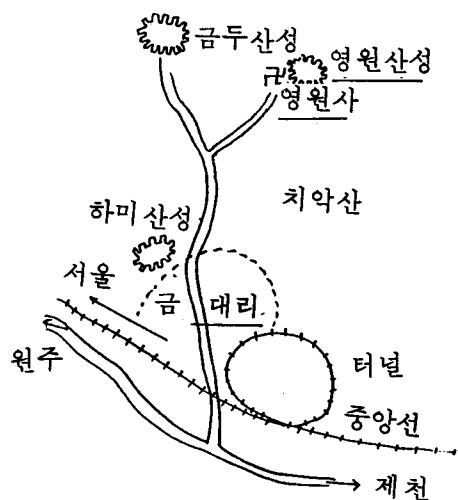
이곳의 위치는 원주와 치악산 넘어 제천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이어
서 천험한 요새라 하겠다.

石城 자체가 古式으로서 이곳의 下尾山城, 金頭山城과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겠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성벽은 외벽이 3 m 내외, 내벽은 2 m 내외로 축성한 것인데 東門址의 구조가 특히 주목된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山中이어서 인위적인 훼손은 없을 것이나 古代의 石城인 점과 특히 삼국사기에 보이는 궁예와 양길을 관련시켜 본다면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41-1. 영원산성



41-2. 영원산성 통문지



41-3. 영원산성



41-4. 영원산성

下 尾 山 城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板富面 金垜里

2. 關 係 資 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推出 : 三國史記 卷第 50 列傳 第 10 弓裔條

「景福元年壬子 投北原賊梁吉 吉善遇之 委任以事
遂分兵使東略地 於是出宿雉岳山 石南寺 行襲酒泉
奈城 鬱烏 御珍等縣 皆降之」

3. 傳 說

궁예가 진을 쳤던 곳이라 전한다.

4. 關 係 事 件 및 人 物

궁예와 양길을 추측할 수 있음

5. 沿革 및 事蹟

삼국사기 기록에 보이는 「雉岳山」과의 관계인물을 弓裔와 梁吉로
생각할때 이들이 축성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나 아직은 고증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金垜里 뒷산 능선을 따라 축성한 石城인데 이곳은 바로 원주와 제
천을 연결하는 길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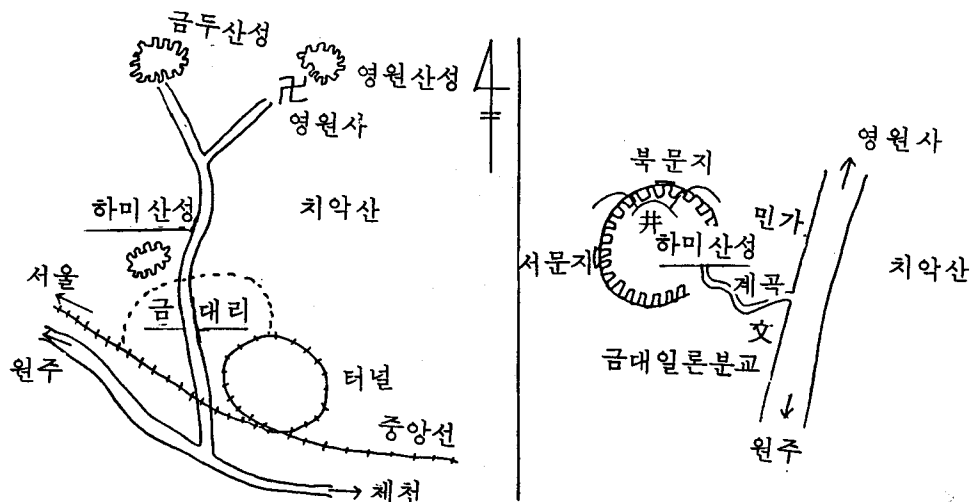
이 城에는 西門址와 北門址가 있는데 모두 3 m내외의 통로를 이
루고 있다. 城內에는 건물의 초석으로 보이는 자연석이 정연하게 놓
여있는 대지가 있고 샘물이 솟고 있는데 샘에는 80 cm × 90 cm 규모
의 石築이 남아 있다.

古式의 石城으로 鶴鵝山城과 金頭山城과의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음
을 알겠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주목되는 것은 北門과 西門址인데 여기에는 높이 1.8 m 내외의 석축이 정연하고 西門址에는 시설물이 있었던 方形孔이 있는 部材가 있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깊은 산속이어서 인위적인 훼손은 없을 것이나 古代의 석성인 점과 특히 삼국사기에 보이는 궁예와 양길을 관련시켜 본다면 지방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42-1. 하미산성 서문지



42-2. 하미산성 성벽



42-3. 하미산성 복문지



42-4. 하미산성 샘터

金 頭 山 城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板富面 金垚里

2. 關係 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推出 : 三國史記 卷第 50 列傳 第 10 弓裔條

「景福元年壬子 投北原賊梁吉 吉善遇之 委任以事
遂分兵使東略地 於是出宿雉岳山 石南寺 行襲酒泉
奈城 鬱烏御珍等縣 皆降之」

3. 傳 說

궁예가 진을 쳤던 곳이라 전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궁예와 양길을 추축할 수 있음.

5. 沿革 및 事蹟

삼국사기 기록에 보이는 「雉岳山」과의 관계인물을 弓裔와 梁吉로
생각할 때 이들이 축성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나 아직은 고증자료
가 정확하지 않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치악산의 시루봉 서쪽에 위치한 거대한 석성인데 下尾城과 鷓鴣山
城보다 훨씬 안쪽에 위치하고 또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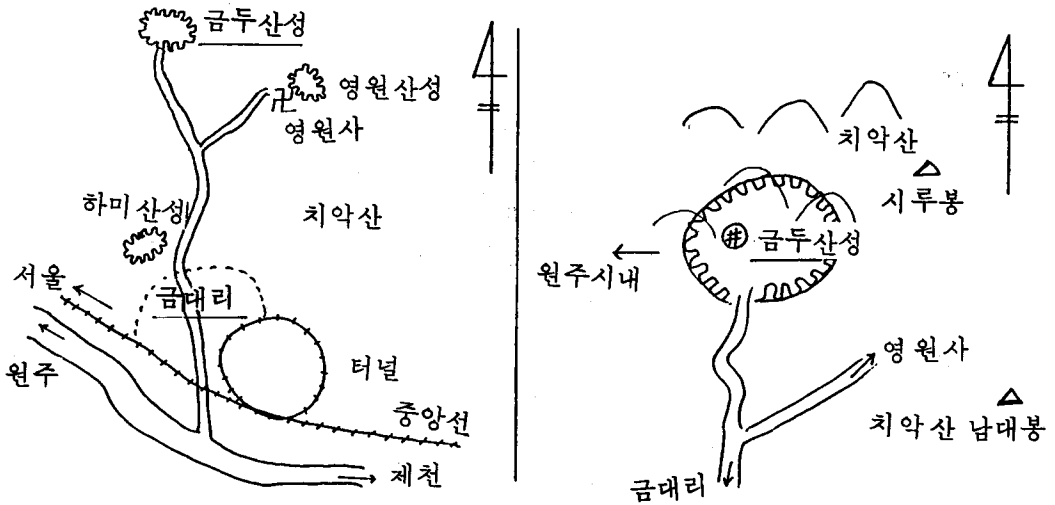
역시 原州에서 치악산을 넘어 제천으로 통하는 길목이라 하겠다.

金垚里長 金祥謙(52才, 金垚 2里 1320번지 거주)씨 말에 의하면 城
內 면적은 약 30정보(31만 8천㎡)라 한다. 현재 군데군데에 城址가
있어 높이 2m내외의 성벽을 볼 수 있다. 城內에는 우물이 있어 현
재도 1m×1m크기의 석축이 남아 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三城中 규모가 가장 크고 높은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首城으로 생각되며 이곳에서 原州는 眼下에 굽어 보이며 상대방의 상황을 잘 살필 수 있었을 것이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깊은 산속이어서 인위적인 훼손은 없을 것이나 古代의 石城인 점과 특히 삼국사기에 보이는 궁예와 양길을 관련시켜 본다면 지방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43-1. 금두산성



43-2. 금두산성



43-3. 금두산성



43-4. 금두산성 샘플터

原 城 龍 岩 里 石 塔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神林面 龍岩 2 里

2. 關 係 資 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 係 事 件 및 人 物

없 음

5. 沿革 및 事 蹟

龍岩里的 탐골부락 일대가 옛 절터인데 이곳에 거주하는 조병국 (72 세, 용암 2 리 880) 씨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작은 석탑 하나가 있었으나 일제침략기에 일본사람들이 강제로 탈취해 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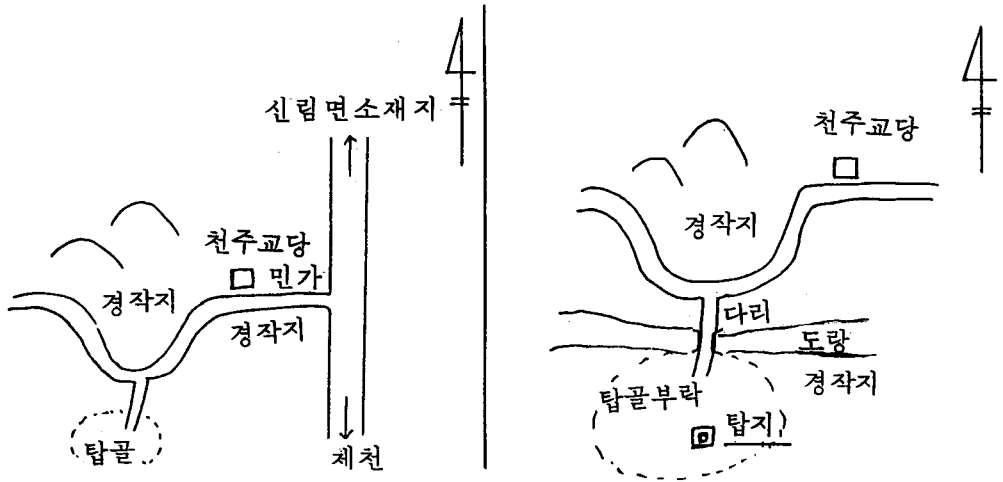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석탑이 서 있던 자리는 현재 오솔길로 변해졌는데 탑이 건립되었던 지대석 일부가 노출되어 있어 당시의 지점을 알리고 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노출된 지대석 석재는 50 cm × 20 cm로 마멸이 심하여 자연석과도 같이 보인다.

8. 略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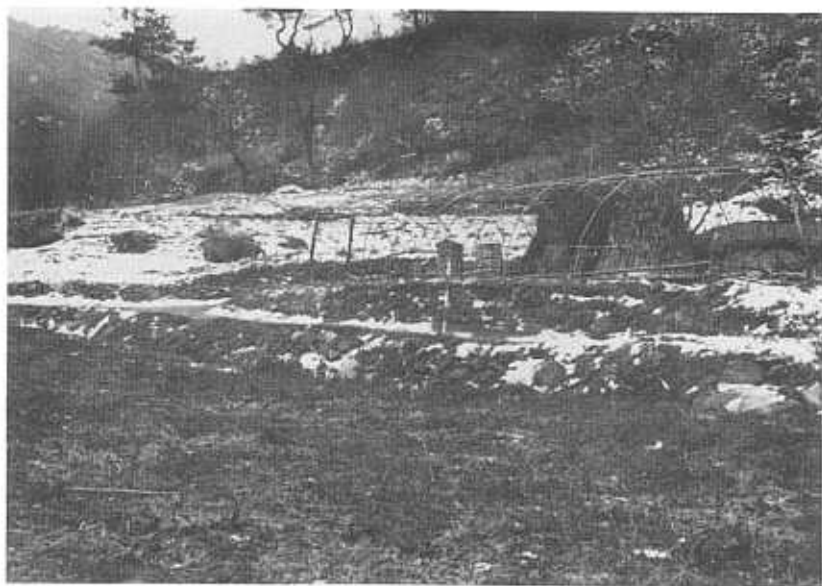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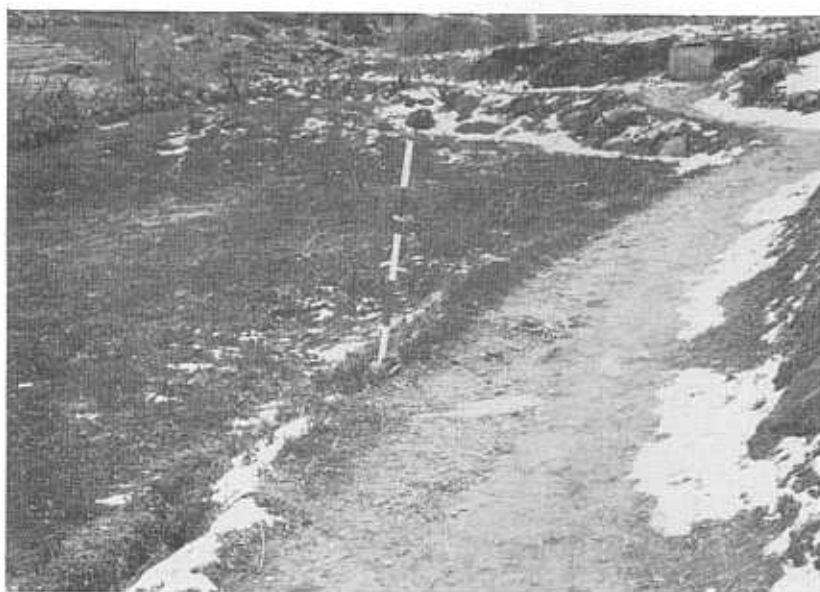
주변 경작지에는 기와편과 자기편들이 산란한데 발굴조사를 실시한다면 산기슭의 民家주변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0. 參考文獻

없 음



44-1. 원성 용암리 석탐지



44-2. 원성 용암리 석탐지



44-3. 원성 용암리 석탐지



44-4. 원성 용암리 석탐지

上 院 寺 大 雄 殿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神林面 城南 2 里 781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雉岳山の 「남대봉」 가까이에 위치한 상원사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인 사찰이나 대웅전은 1965년에 이전에 있었던 법당을 넓히어 새로 지은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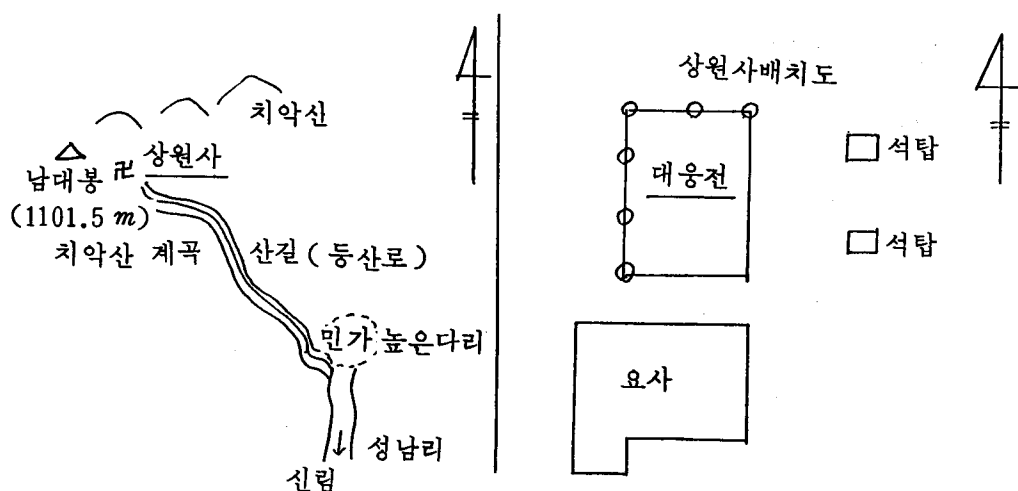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正面 3間 측면 2間 규모로 八作집인데 법당의 불상도 새로 봉안하였다고 한다. 석가래와 기둥등 모두 정연하며 料拱部에 龍頭조각을 배치하여 주목을 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근년의 건축물로는 드물게 보는 정연하고도 질서있는 건축물이라 하겠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신축한지 얼마되지 않고 또한 上院寺의 金堂이므로 보존이 양호하며 앞으로도 또한 잘 보존될 것으로 사료된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45-1. 상원사 대웅전



45-2. 상원사 대웅전



45-3. 상원사 대웅전



45-4. 상원사 대웅전

上院寺三層石塔및 光背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神林面 城南 2 里 781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上院寺 대웅전이 東向하여 건립되었는데 그 앞마당에 南·北으로 1 基씩 2 基의 쌍탑이 배치되어 있다. 해발 1000 m 이상의 높은 高地에 寺刹이 경영된 것도 주목되려니와 또한 이러한 높은곳에 쌍탑이 있는 것도 특이한 일이라 하겠다. 쌍탑은 3 층석탑으로 원위치에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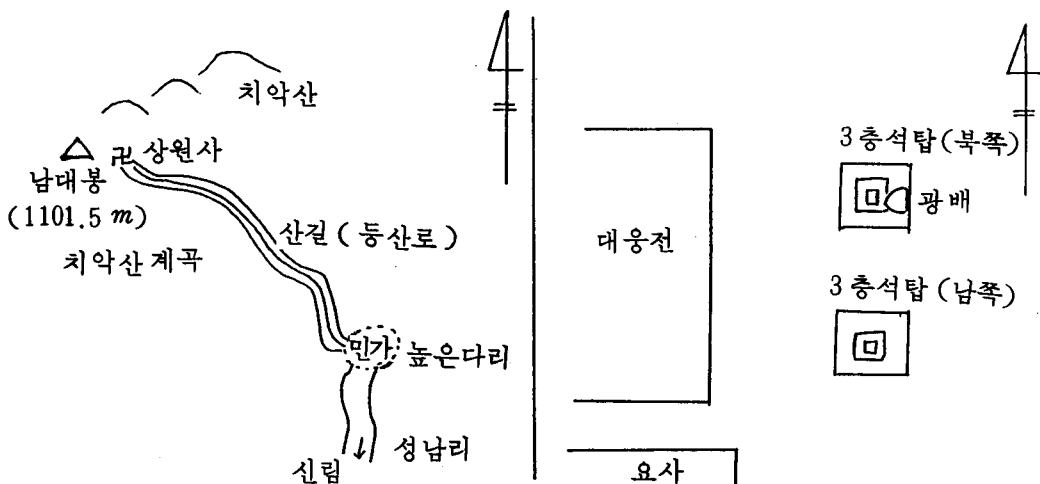
北탑은 全高 3.1 m, 南탑은 全高 2.95 m 규모인데 탑의 형식은 같다. 2 층기단 위에 3 층의 탑신을 형성하고 정상에 상륜부를 장식한 일반형 석탑이다. 기단은 상·하단에 양우주와 1 탕주가 모각되었으며 상층기단갑석에는 부연이 있고 상면에 2 단의 탑신피임이 있다. 탑신부는 身·蓋 1 석씩으로 탑신은 양우주가 있으며 옥개석은 하면이 받침이 없는 斜形이다.

光背는 寶珠형인데 큼직한 원좌와 화염문이 장식되어 있다(現高 75 cm) 이들 유물은 모두 고려 전반기의 조성으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석탑에서 옥개받침없이 斜形으로 처리된 점이다. 이것은 고려전반기에서도 후기로 떨어지는 양식이라 하겠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이 석탑과 광배는 1971년 11월 16일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나 석탑기단내에 석조불좌대가 들어 있는 수습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0. 參考文獻

「北原의 자취」 原城郡 발행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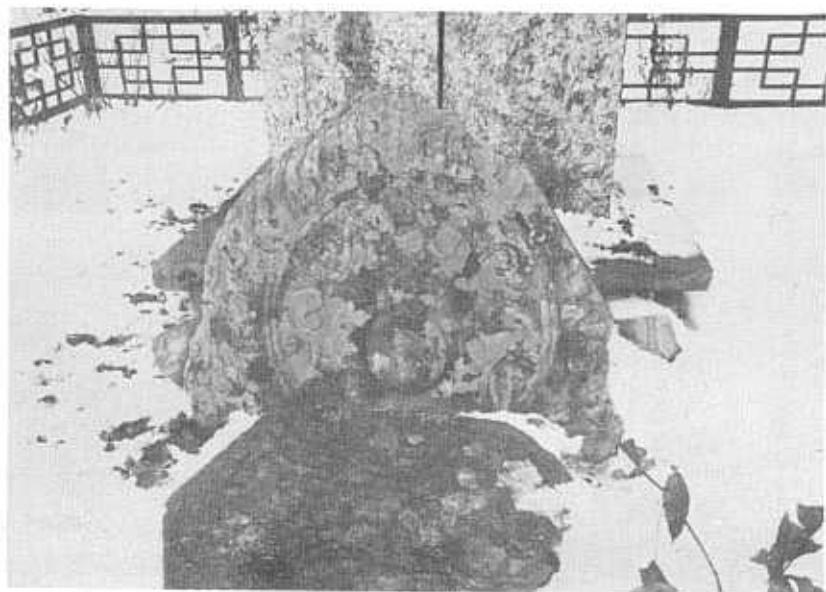


46-1. 상원사 3층석탑



46-2. 상원사 3층석탑 (남탑)

46-3. 상원사 3층석탑 및
광배 (북탑)



46-4. 상원사 광배

原 城 黃 屯 里 石 塔

1. 所 在 地

江原道 原城郡 神林面 黃屯里 송계

2. 關 係 資 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原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 係 事 件 및 人 物

없 음

5. 沿 革 및 事 蹟

黃屯里의 송계동네에 절골이 있어 여기에 석탑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나 6.25 동안때에 古老들은 모두 작고하고 현재 50代 前後 주민들은 사찰지의 존재여부조차 알 수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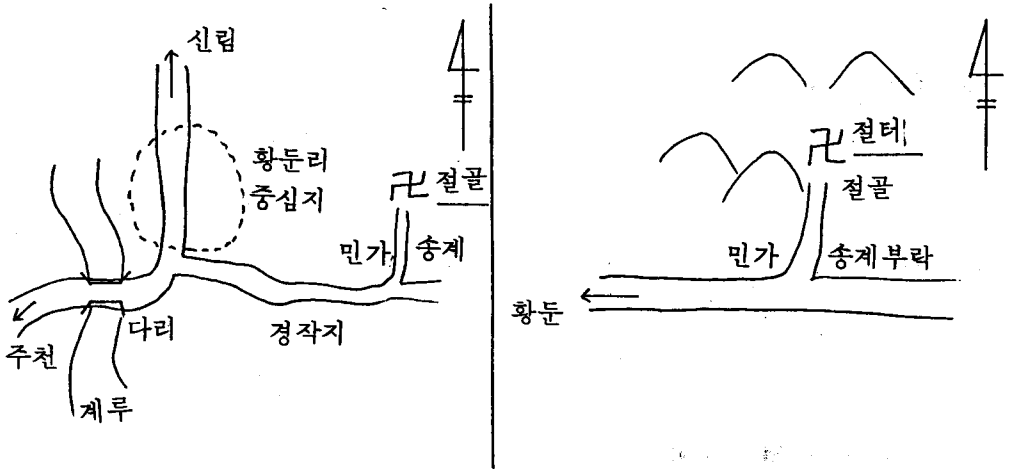
6. 遺 蹟 現 況 및 特 徵

石築자리와 넓은 대지터가 짐작되나 모두 경작지로 변해 버렸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많은 변화로 원위치를 짐작할 수 조차 없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어느 지점임을 알 수 없으므로 발굴조사도 실시하기 어렵다.

10. 參考文獻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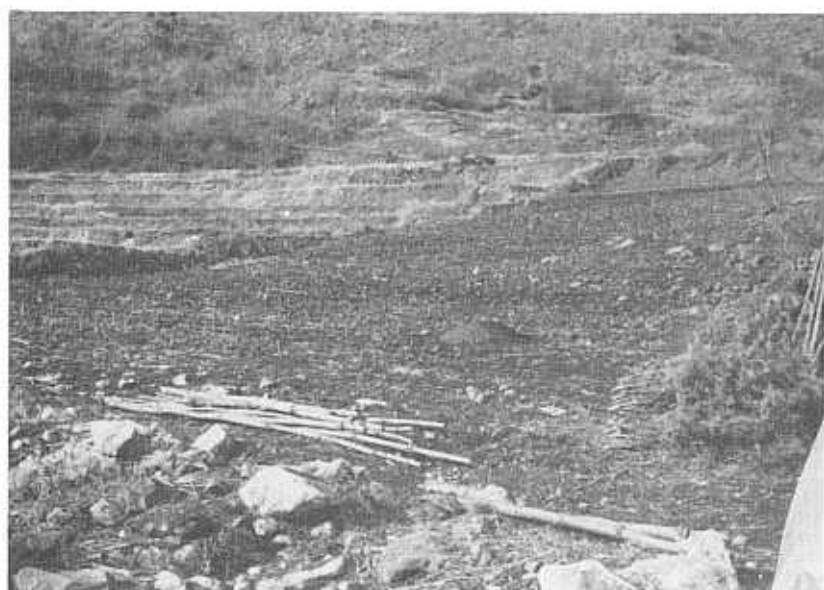
47-1. 원성 황둔리 석탑지



47-2. 원성 황둔리 석탑지



47-3. 원성 황둔리 석탑지



47-4. 원성 황둔리 석탑지

原州一山洞石佛坐像

1. 所在地

江原道 原州市 一山洞 54

2. 關係資料

朝鮮古蹟圖譜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현재 原城郡廳內 잔디밭에 안치하고 있는데 본래는 中央洞(하동리)에 있던것을 일제침략기때 日人들이 南山 추월대로 옮겨 오래동안 동산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6.25 동란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이 石佛은 지방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원주 중앙동 석불좌상과 거의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全高 2.25 m, 좌상높이 1.1 m의 규모인데 높직한 좌대위에 봉안하였다. 언제인지 모르나 머리가 결실된 것을 새로 만들어 올려 놓았다.

좌상은 지권인을 취하였으므로 비로자나불이면 衣文은 通肩하여 유려하게 흘렀으나 각부에서 형식화된 점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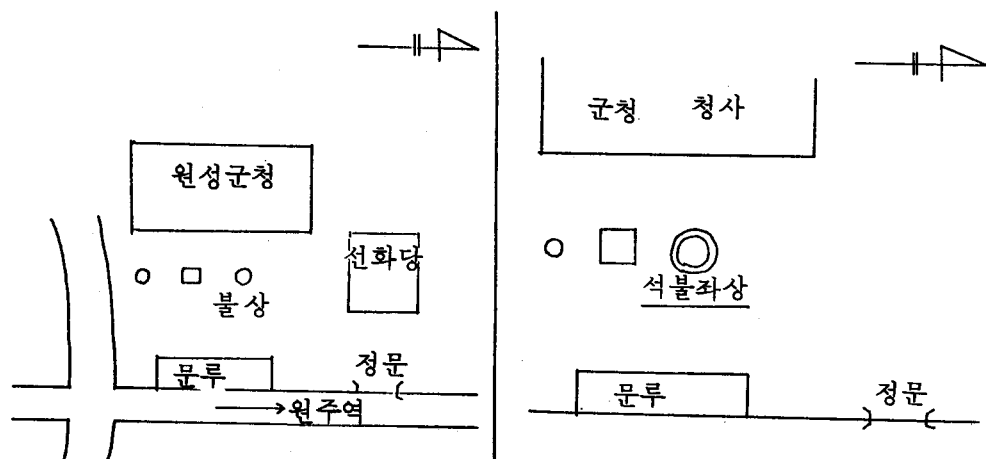
조성연대는 고려초반으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불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좌대인데 하대의 측면석에는 8각마다 眼象內에 獅子를 1좌씩 양각하였고 그 위에 伏蓮石을 놓았다.

8角 중대석에는 양우주가 있고 1구씩의 各像을 조각 배치하였다. 상대석은 원형으로 큼직한 양련을 二重으로 돌렸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머리를 새로 만들어 놓아 동체와 잘 어울리지 않으나 그래도 원형을 찾아본 뜻에서는 그런대로 주의를 끈다.

군청정내에 안치하고 있으므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이 좌상에서 대좌가 완전하므로 고려초기 불상좌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10. 參考文獻

「雉岳의 香氣」 原州市 발행 (1981)



48-1. 원주 일산동 석불좌상 (정면)



48-2. 원주 일산동 석불좌상



48-3. 원주 일산동 석불좌상



18-4. 원주 일산동 석불좌상 (좌대)

江 原 監 營 青 雲 堂

1. 所 在 地

江原道 原州市 一山洞 54

2. 關係資料

없 음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역대관찰사

5. 沿革 및 事蹟

현대 原城郡廳內 宣化堂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 江原監營에 부속되었던 건물로 아전들이 사무를 관장하던 건물이라고 한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ㄱ字形의 집으로 맞대지붕으로 이루어 졌으며 한식 골기와가 정연하다.長大石을 배열하여 기단을 구축하고 그 위에 건립하였는데 서쪽편에는 툇마루를 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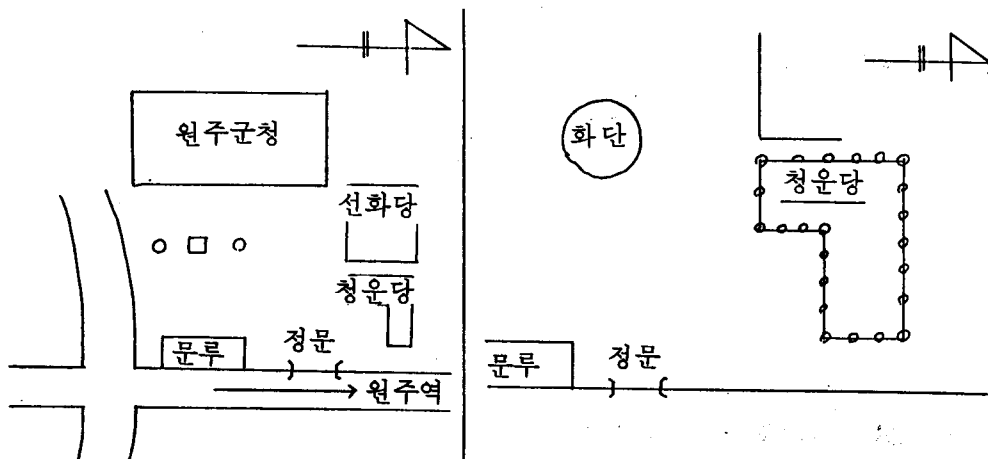
圓形 혹은 方形的 주초석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는데 한면은 正面 4間 측면 2間이며 또 한면은 정면 3間이며 측면 2間이다. 그러나 뒷면은 모두 5間씩으로 이루어 졌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ㄱ字집인 점과 뒷마루가 달려 있는 것이 주목된다.

현재 마루가 깔려 있지 않고 맨바닥인데 본래부터인지, 혹은 중년의 개조시부터인지 알 수 없다. 본래부터라면 주목되는 점이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 原城郡廳의 境內에 있으므로 보존이 良好하다. 특히 近年에 이르러 修理하였으므로 原形도 잘 알 수 있어 多幸이라 하겠다. 原形이 現在대로인 것이면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는 없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10. 參考文獻

없 음



49-1. 강원 감영 청운당



49-2. 강원 감영 청운당 (측면)



49-3. 강원 감영 청운당



49-4. 강원 감영 청운당

原城橋項里磨崖菩薩坐像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所草面 橋項里 절골

2. 關係資料

없 음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橋項里 절골의 佛頭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산기슭에 암벽하나가 솟아 있는데 이 벽면에 보살좌상 1구가 線刻되어 있다. 西向한 암벽이므로 흔히 눈에 띄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은 것 같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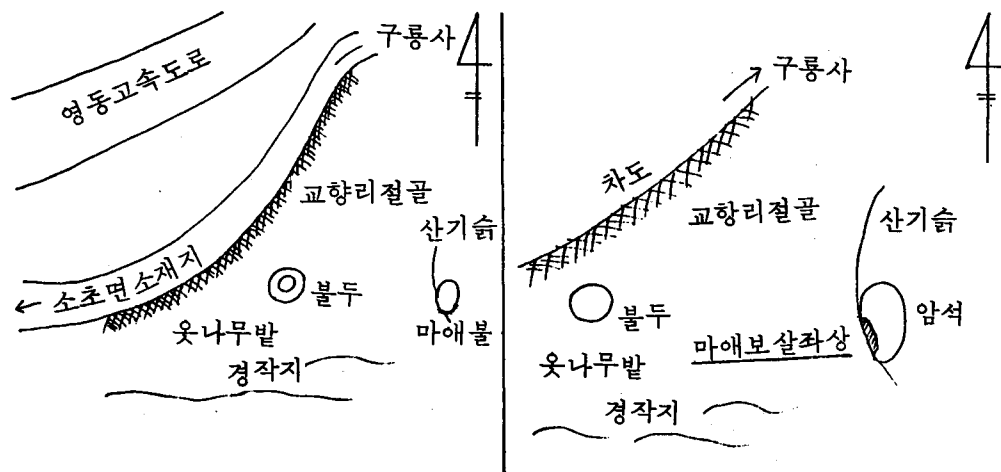
높이 3.7 m, 넓이 6.2 m 크기의 암벽에 가득히 조각하였는데 보살의 높이는 3.5 m이다. 이 보살은 측면상으로서 머리에 보관을 썼는데 하단에 좌·우로 관대가 보인다.

寶髮의 표현이 부드러우며 相好는 원만상으로 양미·안파 비량등은 잘 남아 있으나 입은 파손되었다. 목에 三道가 둘러지고 天衣는 편단하였으며 오른발을 구부려서 얹고 왼발은 직각되게 펴 왼손을 받치고 있다. 각부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 전반기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특기할 것은 왼손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연꽃등의 공양물을 올려 놓아 오른손으로 이것들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형상은 흔한 것이 아니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아 보존이 양호한데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그것은 비록 線刻이나 측면상을 취하고 공양물이 있는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10. 參考文獻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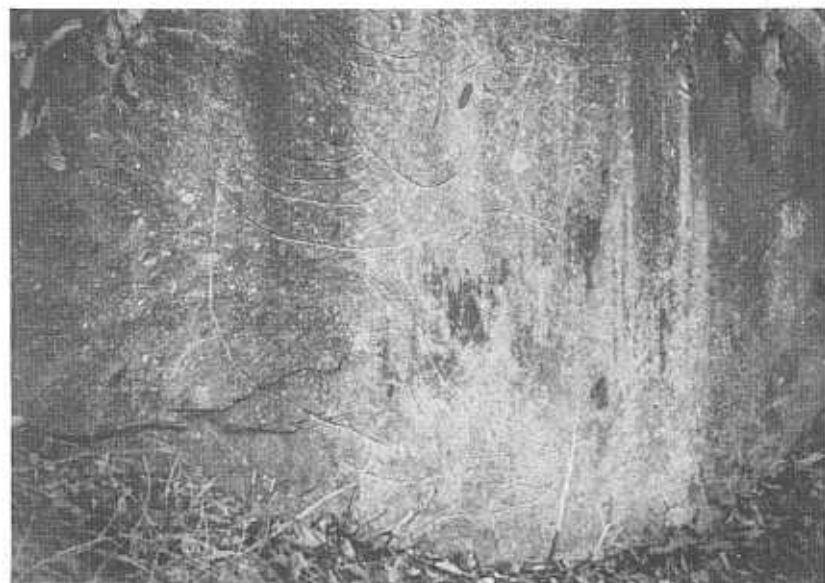
50-1. 원성 교항리 마애보살좌상



50-2. 원성 교항리 마애보살좌상 (상부)



50-3. 원성 교항리 마애보살좌상



50-4. 원성 교항리 마애보살좌상 (하부)

1. 所 在 地

江原 原城郡 板富面 金垈里 1388

2. 關係資料

없 음

3. 傳 說

신라시대에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寺刹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여러번 중창되어 오다가 현재의 사찰은 1964년도에 김병준스님이 중창한 것이라 한다. 현재 경내에는 창건당시의 유물은 없고 근년에 신축한 대웅전과 三聖閣이 있으며 묘사체에 승려가 기거하고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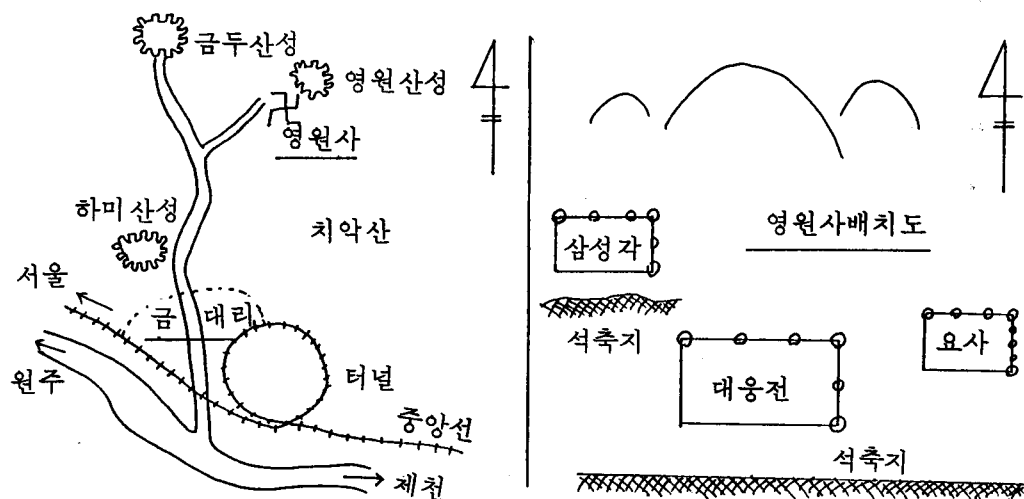
대웅전은 正面 3間, 측면 2間 규모의 八作집으로 한식 골기와가 아니고 왜식 기와기붕을 이루고 있다.

三聖閣은 正面 3間, 측면 2間 규모로 八作지붕인데 한식 골기와를 얹고 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건물은 근년신축물이나 이곳에 석축들은 古式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며 주변에 기와편과 자기편들이 흩어져 있어 또한 주의를 끈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石築址로 보아 오래인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발굴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창건 당시의 원위치등을 밝힐 수가 없을 것 같다.

10. 參考文獻

없 음



51-1. 영원사 대웅전



51-2. 영원사 대웅전



51-3. 영원사 삼성각



51-4. 영원사 삼성각

原城龍谷里三層石塔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好楮面 龍谷里 상용곡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橫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상용곡 부락의 넓직한 경작지 일대가 옛 절터인데 현재도 이곳에는 옛기와편과 자기편이 산란하다.

이곳에는 현재 3층석탑 1基와 석불좌상 1軀가 보존되어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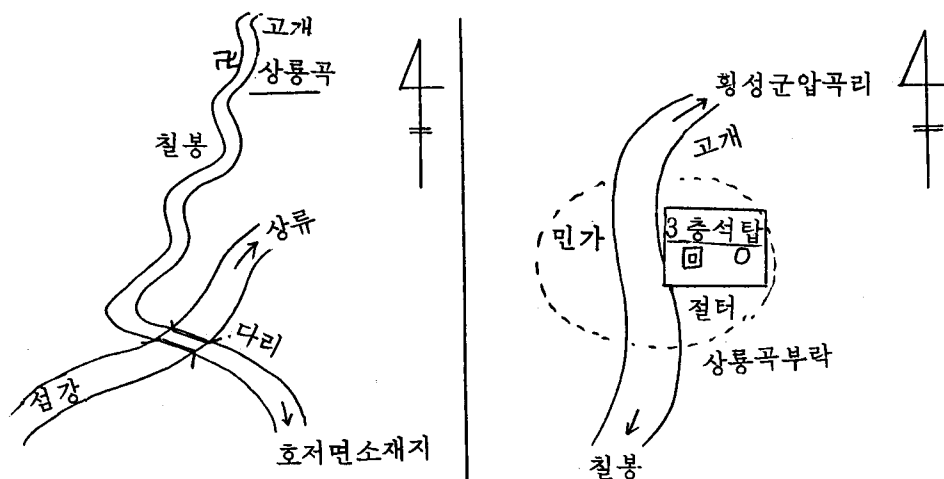
단층기단위에 3층의 탑신을 형성하고 정상에 상륜부를 장식한 일반형 석탑이다. 기단면석에는 양우주와 1탱주가 모각되고 2枚板石으로 짜여진 甲石 상면에는 괴임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甲石 위에는 1枚板石으로 조성된 仰蓮괴임석이 끼워져 있어 주의를 끈다. 탑신부는 身·蓋 각 1석씩으로 조성하였는데 탑신에는 양우주가 있고 옥개석 하면에는 받침이 4단씩 마련되어 있다. 相輪部는 노반과 복발, 보개등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건립 연대는 고려시대 전반기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現高 3.3 m의 中形塔인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甲石위에 끼워진 연화괴입석이다. 이러한 例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前代보다 유행된 것이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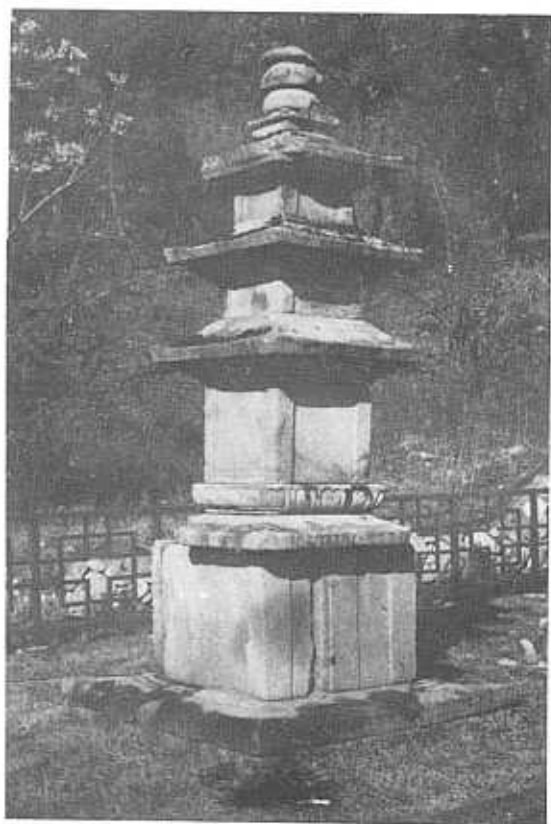
당국에서 보호철책을 돌려놓고 잔디를 심어놓아 보존은 양호하다. 그러나 주변 일대를 발굴조사하여 사찰의 규모와 성격을 밝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석탑이 특이한 양식이고 원형인 점으로 보아 보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10. 參考文獻

「考古美術」 55 “橫城鴨谷里的 塔・像” (鄭永鎬)



52-1. 원성 용곡리 3층석탑



52-2. 원성 용곡리 3층석탑



52-3. 원성 용곡리 3층석탑
(탑신부)



52-4. 원성 용곡리 3층석탑 (기단부)

原城龍谷里石佛坐像

1.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好楮面 龍谷里 상용곡

2. 關係資料

「文化財總覽」 江原道 橫城郡 편

3. 傳 說

없 음

4. 關係事件 및 人物

없 음

5. 沿革 및 事蹟

상용곡 부락의 넓직한 경작지 일대가 옛 절터인데 현재도 이곳에는 옛기와편과 자기편이 산란하다. 이곳에는 현재 石佛坐像 1軀와 3층석탑 1基가 보존되어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광배는 없으나 方形의 좌대위에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全高 1.9 m, 좌상높이 94 cm의 中形佛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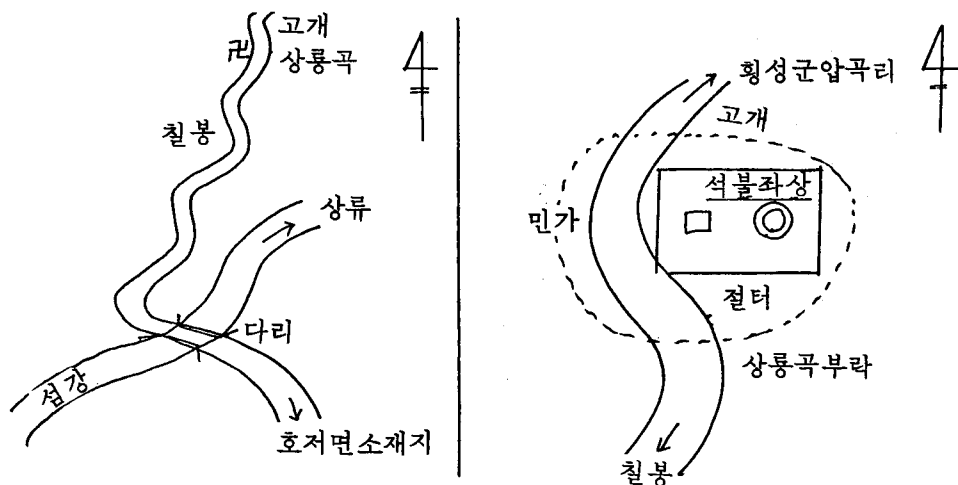
좌대의 하대에는 伏蓮을 돌리고 중대석에는 큼직한 眼象을 장식하였으며 상대에는 單葉仰蓮을 장식하였다.

좌상은 나발이며 相好의 각부는 정제되었고 큼직한 白毫孔이 있다. 法衣는 通肩이며 手印은 지권인을 結하여 비로자나불임을 알 수 있다. 각부의 조각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전반기로 추정된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石佛에서 주목되는 것은 方形의 좌대인데 方形座台는 신라말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유행되었던 양식이었다.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對한 概略案

당국에서 보호철책을 둘러놓고 잔디를 심어놓아 보존은 양호하다. 그러나 주변일대를 발굴조사하여 사찰의 규모와 성격을 밝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불상이 특이한 양식이고 비록 광배는 없으나 대좌등 완형인 점으로 보아 보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10. 參考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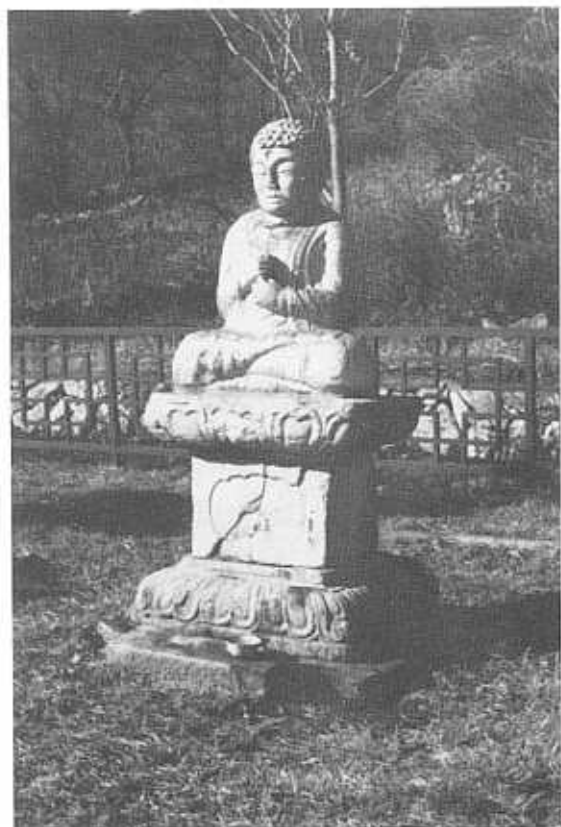
「考古美術」 55 “橫城鴨谷里的 塔・像” (鄭永鎬)



53-1. 원성 용곡리 석불좌상



53-2. 원성 용곡리 석불좌상



53-3. 원성 용곡리 석불좌상



53-4. 원성 용곡리 석불좌상